朝鮮日報 夕刊 十三日(水) 本紙朝夕刊十二面
本社定期刊行物 『朝光』(月一回發行) 『女性』(同上) 『少年』(同上)

自國民에게咀呪받는 敵軍의焦土作戰 退却時엔반드시放火

【石家莊十二日發同盟】灼熱下에 至今에展開되고잇는 山西南部의 大殲滅戰에잇서서 特히注目할것은 敵이取하고잇는『焦土作戰』인바 이것은일직이『나폴레옹』이 莫斯科를攻略하려고할때 露西亞軍이退却함에當하야 莫斯科에불을질러 同市에入城하든『나폴레옹』軍을괴롭게한 故事를 본뜬것인지 支那軍은 退却할때 掠奪을恣行한後 全市에放火하고 逃走하는것을 常例로하는바 曲沃南方陣地에서 撤退할때와 聞喜附近에서와 그리고 十一日에 垣曲에서退却할때에도 亦是大規模의 放火를하야 이때문에 垣曲市街는 全部火災와硝煙에싸혓다 支那側의 이不法行爲로 各地의住民은 甚히自國軍을咀呪하며 이를契機로人心은 漸次蔣介石政權으로부터離脫되여 新政權을待望하는與論이높다

總攻擊一週日未滿에 山西敵廿數個師潰滅

【石家莊十三日發同盟】備立憶을 總加로 二十數個師의 大軍을羅하야 山西省南部의要衝을 蠢諦하고 河曲、曲沃、河津을連結하야 南方地域一帶에侵入 徐州會戰의 汚辱을挽回하려는 敵軍은 三月作戰以來 隱忍自重待機하며 爾後의 作戰準備를整頓하든 我皇軍에 去五日突然活動을開始 全面的攻勢를取하야 果敢한 總攻擊을 한以來 아직 一週日이 못되는데 敵은 벌서 四分五裂狀態가되야 我軍의捕捉殲滅을 免하려고 或者는 山地기피 遁入하고 或者는 南方 黃河渡河點을 目標로 退却하는等 大混亂狀態에陷入하야 戰局은 이미 第一期로부터 第二期殲滅戰에 옮겻다 卽 戰鬪正面인 曲沃南方의 敵은 堅固한 陣地에依據하야 抵抗을 試하엿스나 某時間에擊破되여 南方으로 退却 我軍은이를追擊 絳縣附近에 일으럿다가다시 南方으로 向하야 滑走하는敵을 攻擊中이다 一方敵은 垣曲東方地區에서 西進하는 高木部隊와 垣曲渡河點을 擁護코저 頑强한 抵抗을 試하엿스나 이亦是我軍의 敵이아니어서 追擊部隊와 山瀨部隊의 突擊에 徹底히 擊滅되야 陣容이 全然 어지러워저 一日드디여 垣曲을 放棄하고 西方으로 向해退却을 開始하엿다

蔣의整理策에激憤 雜軍、中央軍과對峙

【北京十二日發同盟】山西省南部 臺蘭에서 百三十餘度의 暑熱과 物資食糧의 缺乏과싸우면서 超人的 奮戰을 繼續하고잇는 皇軍의 士氣는 益益旺盛을極하고잇는바 이에反하야 支那軍은 到底히 勝算이업슴을 깨닷고 特히各雜軍은 蔣介石의 雜軍整理가 매傷化함을 깨닷고 우리들은 前線에서 싸우고잇는데 中央軍은 멀서 逃亡하기 始作하엿다고 하며 全혀 戰意를 喪失하고 또 四川軍과 가튼旅長 以下兵隊를이르켜 마음대로 前線을離脫하기도하며 中央軍을 目標하고 反擊하는等 軍規는 極度로紊亂하여잇는데 前線에서 後方으로 逃亡해온 四川軍將校는 山西南部의 支那軍消息에 對하야 다음가티말하엿다 (雜軍整理方針은 蔣傳的이여서 雜軍은 中央軍督戰隊와 서로 戰鬪를하고잇는 形便으로 最近은 下級者뿐만아니라 旅長에 이르기까지 督戰隊와 싸우고잇다) 憤慨를 품고잇는 蔣介石의

兩若宮殿下 桃鄕서水泳御訓練

【東京電話同盟】十三日부터 十一日間 沼津의 桃鄕海岸에서 一學生의 御資格으로서 寄宿舍生活을 御體驗하시기로된 學習院初等科六年御在學中이신 賀陽宮治憲王、同四年御在學中이신 東久邇宮俊彦王兩殿下께서는 初等科學生百八十餘名과함께 十三日午前八時十分 東京驛御發、沼津으로 向하시엿다 그리고 四年御在學中이신 久邇宮邦昭王殿下께서는 御感冒로 二三日 늣저 沼津으로 向하실터이다 各殿下께서는 寄宿舍의 規律이 正確한 日課와 御質素한 御食事에도不拘하시고 御滯在中嚴한 水泳訓練을 바드시게될御豫定이시다

大野政務總監 小磯軍司令官訪問

大野政務總監은 十三日午前九時 龍山官邸에 小磯軍司令官을訪問 여러가지會談을하고 同九時二十分辭去하엿다

時事解說

新戰區

我遡江部隊의 [illegible]攻工作의奏効로 去五日 漢口防備의 第一關門으로 볼수잇는 湖口가陷落된以來 요즈음 新聞紙上에는"新戰區"라는말이 자주 나타나게 되엿다.

新戰區라는 말은 그題目이 從來부터 特別한 術語的意味를 갓고잇는것이아니[illegible] 스스로 [illegible] 漢口攻[illegible] 進軍하는 我軍[illegible] 다음[illegible]

◇

湖口陷落後 去九日 及川支那方面艦隊司令官은 湖口로부터 그上流 八十哩의 黃石港까지 이르는 사이에 散泊한 第三國艦船에 對하야 自主防衛의 要求를 하엿고 또 [illegible] 去十一日第三國駐在官憲에게 今後激戰[illegible] 人의生命財產을 [illegible] 不測의災害[illegible] 然에 防止하려는것으로 此[illegible] 第一次[illegible] 去六月二十日에 이미 第一次要求를하야 良好한 成績을 收하엿다.

◇

今回 第二次的으로 第三國人에게 [illegible] 定한 地域 卽新戰區는 海軍은 上述한바와가티 湖口[illegible] 漢口附近、九江附近、南昌附近、[illegible]沙附近、岳州附近[illegible] 한 廣大한 地域에 [illegible]다 今後 [illegible] 長江一帶의 新戰區[illegible] 防한 부용(防柵) [illegible] 網 其他防備陣地때문에 [illegible] 陷落은 四五個月의 時日을 要하리라는것이 [illegible] 의獨逸軍事顧問의 [illegible] 즉 相當한激戰이 豫想된다.

總督府實行豫算案 政府要求額과懸隔顯著

新物資動員計畫에伴한 總督府實行豫算案은 十三日中에 財務局에 全部提出되엿스므로 總督의 決裁를 得하는대로 水田財務局長은 十五、六日에는 渡東 大藏省側과 折衝을行하기로되엿다 그리고 節減額은 一率로 削減을하는것에對하야도 大藏省의 明示가업는것이잇고 또軍部의意向如何에依하여 中止遷延할수업는事項도잇슴으로 確定的인것은아니나 財務局과 各局側과의 最善의努力에도 不拘하고 政府가 要求하는 節減程度와는 豫想以上의懸隔이잇서 大藏省과의 折衝은 相當한 曲折이잇슬것으로 보인다 財務局으로서는 總督府案은 緊急한것 以外의土木營繕工事는 勿論 人員增加에要하는 人件費가튼것도 徹底한 削減을各局에 要求한 結果作成된 이다하야 財務局長은 總督府原案의承認을 期할것으로보인다 그리고來年度豫算에關하야는이미 大藏省의 編成方針指示에 接한故로 財務局長은 實行豫算의折衝을至急解決하고 即時編成에 着手하기로되엿다

我陸荒鷲隊 賈魯河敵을猛爆

【徐州十二日發同盟】我軍의賈西地方殘敵掃蕩戰에 艱辛히包圍圈을 돌파코 曹縣으로脫出逃亡한 曹福林軍은 周家口方面으로 逃走하엿다는情報를接한 我陸의荒鷲○○部隊는 十二日아침賈魯河를渡河하려는 敵에게 猛爆을敢行大損害를 주엇다

敵軍又復堤防決潰 九江市街水國化 漢口西北方에도洪水亂

【南京十二日發同盟】揚子江流水는 益益水量을 增加하야 上流方面에는 特히尤甚한바 漸次安慶各地는 本格的으로 洪水가來襲되고잇다 我空軍으로부터의偵察에依하면 漢江大增水의 結果 漢口西北方은 漢江流域五十哩에亘하야 全面이 洪水로化하야 漢口市街及飛行場은 濁水中에 떠잇스며 또九江은 我軍의 湖口攻略으로 脅威된支那軍이堤防을 決潰하고 濁水를流入케한結果 市街는四尺乃至五尺의 浸水를보게되엿다 飛行場도全然水中에 浸沒되여잇다고한다 연고 英國旗와 美國旗에 關한 太古洋行 怡和洋行 亞細亞石油會社等의 建物은모두破壞되여 江岸에面한 建物은 陣地에利用되며 하르크 는 二個가 沈沒되엿다 이에對하야 英米兩國大使는 各其嚴重抗議를 提出한模樣이다

九江防備陣地 某軍事專門家報告

【上海十三日發同盟】最近九江으로부터 漢口로 도라온 某外國人軍事專門家의 報告에依하면 李漢魂이引率한 廣東軍數個師는 九江을 防備하고저 來援하게되여 揚子江沿岸陣地는 더욱 强固하게되엿다 現在九江으로부터 漢口에 이르는 約百哩의 地方에는 어미防備陣地 數段이 構築되여 機關銃座와 高射砲陣地는 百八十個所 堡壘八百個所에 及하고잇다 또支那軍精銳部隊는 九江南昌附近一帶에 充滿하여잇스며 그裝備도 優秀하다 南昌北側 鄱陽湖岸은 數萬의 支那軍에 依하야 守備되여잇스며 湖口로부터 揚子江岸에 이르는 사이는 기괴가六尺에 達하는鐵條網[illegible] 施狀의[illegible]

九江敵軍大動搖 各施設을破壞

【上海十二日發同盟】當地外人側에達한 其後의情報에依하면 支那軍은 我遡江部隊의 九江進攻이 迫頭하엿다고 大動搖를招來하야 벌써九江放棄를 決意한後 堤防과港灣의 各施設을 모주리 破壞또는 燒却하고잇는바 스탄다드石油會社建物은 이미燒失되엿다

待機四週間만에 廣東을又復猛爆

【香港十二日發同盟】颱風期의惡天候로 我空襲의脅威를 免하고잇든 廣東市는 十二日午前十時 四週間만에 我空襲을바더 大混亂을이르켯다 數日來風聲鶴淚에 떨고잇든 防備當局의 頻繁한空襲警報에 鄕鎭된 市民은 十二日의 空襲警報가울리여도 全然이를무러워하지안코 無視한대문에 我飛行機는 充分히 投彈되야 廣東의 全市는 大混亂에빠저 廣東省政府中山記念館 黃沙停車場附近의 軍事施設은 多大한損害를바덧스며 또猛爆으로 香港廣東間의軍事輸送路는杜絕되며 九龍에는貨物이 山積되여잇다 그러나最近의 颱風期를利用하야 軍事輸送은 急速히擧行되야 當地의 [illegible] 는 一層되엿다고한다

國民參政會議 抗戰策五項目決定

【香港十二日發同盟】國民參政會議가 今日까지에 決定發表한決議는

一、政府를 擁護하야 長期抗戰의 國策樹立

二、民衆團體를調査하고 民力의 發揮、回復을 檢查統一할것

三、內地에서 鑛工開發의 基礎를 樹立하고 生產을增大、國力을增進케할것

五、內地農業을 確立하고 後方生產事業을 增進하야 抗戰力量을 增大케할것

以上의 五項目인바 右第一項은 陳誠이 指導者가되여 最近慶[illegible]히傳하는和平論을 一蹴하고 參政會를通하야 徹底的 抗日方針을 決定한것이며 第四 第五는 國家經濟 今後의 方針을 決定한것이다 第二는 共産黨及 第三黨의 提案에 依한 民衆總動員 軍需整備 農業鑛工業 各階級의 組織化를 目的으로하고 民衆을嚴重한國家統制下에 두려는 企圖를表明한것이라한다

漢口는現世地獄 全市民戰戰兢兢

【某處着情報】去月末漢口에는突然戒嚴令이 發布되야 市民은자못戰戰兢兢하고잇는데 이는當時 重慶에잇든 蔣介石이 漢口로온까닭으로 漢口附近에 正規兵其他合하야 百萬大軍을 擁하엿다고豪語하는 蔣介石도 共產黨의勢力增大와 그威壓에는 脅威를바더 身邊의警戒를 一層嚴重히하고잇다 그리하야 漢口를 비롯한主要都市에서는 每日旅館其他의檢索을 行하야 조곰이라도 疑心이잇는者는 直時逮捕하야 每日數十人式 奸漢이라하야 處刑하고 또조곰이라도 이를非難하는者가잇스면 亦是가튼 鐵槌를내리는 狀態로 市民은 如干戰戰兢兢하는바아니다 特히 最近에는 上海사투리를 쓰는者는 모두密偵으로檢擧하야取調하는殘忍性은 참아볼수업는터이라한다

岩崎班長嚴父逝去

朝鮮軍司令部高級參謀兼報道班長 岩崎民男大佐 嚴父李氏는 鄕里山口에서 療病中이든바 十一日夕 逝去하엿스므로 同大佐는 十二日『히까리』로 鄕里에向하엿다

日支調停說과 倫敦政界의觀測

【倫敦十二日發同盟】카-(?)駐支英大使의 漢口訪問에 關聯하야 又復 英國의 日支調停說이 傳하는데 로이털通信社는 倫敦政界의觀測이라하야 十二日 如左히 報道하엿다 倫敦에서는 只今形勢로는 調停의 豫測이서지안는模樣이다 그러나 英國政府로서는 이領域에서 活動하기 조흔機會가 到來되엿다는 豫測이 선 때에는 何時던지 東洋乃至 諸國과 共同하야 調停에 進出할것이다 極東事變으로 말미암아 被害를 바든 國家가 多數에 達하고잇는 事實을 倫敦의 觀察者는 充分히 認識하고잇다

日本의回答接受 米人財產保護에關해

【華盛頓十二日發同盟】헐國務長官은 十二日新聞記者團파의 定例會見席上에서 長江沿岸의 米人財產保護問題에 關하야 日本政府로부터 回答을接受한旨 如左히言明하엿다 米政府는 揚子江流域의 米人所有財產及米國市民의 取扱에關하야 지난 五月三十一日 日本政府에 通牒을 보냇든바 이에對한 日本側의回答을 接受하엿다 그回答은 자못包括的內容을가진것인데 아직도若干의點에關하야 說明을必要케할것이잇다

訪日獨靑年團 브레멘出帆

【브레멘十二日發同盟】日本靑少年團獨逸訪問의 答禮로써 日本을訪問하는 히틀러靑年團代表一行三十名은 十二日朝 브레멘出帆의 그나이제나우號로 日本訪問의 途에올랏다

各樞府顧問官 外交經過聽取

【東京電話同盟】十三日은 樞密院本會議定例日이나 附議案件이 업기때문에 平沼、原正副議長以下 各顧問官은 午前十時宮中에參內 天機를奉伺하고 退下하야 休憩室에서 宇垣外相으로부터 一般外交經過及 事變을圍繞한列國의動向에對하야 詳細한說明을聽取한後 同十一時四十分 散會하엿다

總督府豫算編成 政府方針에順應

總督府財務局에서는 昭和十四年度豫算編成을 政府의方針에準據키로되여 去八日閣議에서 決定된 六項目에 亘하는 內容을 그대로 政務總監名義로써 十二日 各局課에 通牒하엿다

內政會議

【東京電話同盟】十三日의內政會議는 末次內相이 病으로缺席한 때문에 午正때부터 首相官邸에서 近衛首相、池田藏相、荒木文相等 三相이參集하야 午餐을가티하며 物資動員計畫의 徹底 國民精神總動員再編成、其他長期戰에 對應할國內諸對策에對하야 여러가지 意見을交換한後 午後三時지나 散會하엿다

루大統領臨席下 米艦隊觀艦式擧行

【桑港十二日發同盟】西部各州에 遊說旅行途中에잇든 루즈벨트大統領은 마츰내 十四日桑港에到着、同日午後 桑港灣에서의 合衆國艦隊觀艦式에 臨하기로되엿다 同日루즈벨트大統領은 新銳一萬噸級巡洋艦 휴스톤號에 坐乘하고 旗艦펜실바니아號 以下合衆國艦隊의 艦艇八十隻이라는 桑港灣空前의 大艦隊를 親히 觀閱할터이다

南米뷀네젤라 聯盟脫退通告

【쥬네브十二日發同盟】南米뷀네젤라政府는 十二日 國際聯盟을 脫退할旨 聯盟事務總長 아브놀氏에게 正式으로 通告하엿다 이것으로 中南米諸國中 脫退를 通告한國家는 九個國이다

本社懸賞寫眞 佳作「江邊」 場所=麻浦 京城府竹添町一의二二 吳炫佶

獨、蘇中間小國의 第三樞軸運動! 波蘭을中心으로結成

西班牙動亂、獨逸의 게르만民族統合運動及 蘇聯邦의 對東歐關係政策을 圍繞하고 歐洲의國際關係는 자못紛糾되어 聯盟은單只形骸만남어서 無力化하엿슴으로 諸小國은 自然自力으로써 中立을保持하고 紛爭渦中에陷入함을 回避코저 第力하고잇다 獨墺合邦成立以來 特히 對外關係에緊張되여잇는 波蘭은 此等小國群中의實力國이고 또 獨、蘇兩國의中間에 位置한 特殊事情이잇는이만큼 利害關係를 切實히感하게되야 小國을糾合 中立團體를 結成하려는 意向으로 얼마전부터 베크外相이 所謂『第三樞軸』運動에 奔走하고 잇슴도 自然之勢라고 말할것이다.

卽波蘭外相베크大佐는 지난五月下旬北歐瑞典을 訪問하고 同國政府와 交驩하엿는데 이와前後하야 丁抹、芬蘭、아이슬랜드、諾威、瑞典의 北歐五國은 五國中立條約을 協議하야 五月二十七日로서 歐洲各國의 對立이 激化되고 또聯盟을中心으로한 集團保障主義가沒落되고 잇는 事態에 鑑하야 北歐諸國의獨立維持及平和保障을 爲하야 前記五國間에 中立聲明을 結成하고 五國以外의 第三國紛爭에 絕對介入치안흘것을 互相誓約한 五國條約의 正式調印을 行하엿다 이會商中途에 베크外相은 波蘭에 도라오자 直時 바틱協商國에 飛機하야 지난六月十日 에스토니아首府 리가府에서 右協商國外相會議가開備되게되엿다

卽 會議에는 波蘭、에스토니아、리티아니아三國外相이 參集하야 北歐五國中立條約에 보며 中立團體의 結成을 協議한結果 六月十二日에

一、바틱協商國은 所謂『이데오로기・블록』에 參加치말고 中立政策을 堅持할것

一、外部로부터의 勢力에 影響되는일업시 自由러운 立場에서 [illegible]

[illegible]係로 英佛兩國側에 接近하고잇는 [illegible] 從來獨伊樞軸에 [illegible] 勢力이잇는데 波蘭、루마니아等이 [illegible] 各國에까지 그運動이 [illegible] 開始되야 今後도 近東 [illegible]

如斯히 波蘭을中心한 발틱海、黑海를連結하는所謂『第三樞軸』의 運動은 [illegible]

(寫眞 베크波蘭外相)

八面錄

◇米國의 富豪飛行家 휴스君은 太平洋을 十六時間半만에 翔破하고 단숨에 世界를 一周할 意氣라고.

◇十六時間이면 十年前 린드버그大佐가 最初 橫斷한 三十三時間의 半도아되고.

◇最近 누구의 記錄보다도 最速記錄을 突破.

◇世界一되기를 자랑하는 양키에 도한번 자랑꺼리가 생겻군.

◇飛行機말이 낫스니 말이거니와 또 米國서는 飛機自動着陸實驗에 成功햇다고.

◇事故업시 自動的으로 着陸한다면 生命의 危險이 업스니 航空界의 一大革命.

◇누가 發明햇든 널피 世界에 普及된다면 얼마나 利用厚生이 될가.

◇雲山金鑛이 二千萬圓에 賣渡說.

◇歷史 오랜 金鑛이거니와 可히 黃金狂時代임을 알겟.

きれいる

▲淋巴腺結核……에 ○注射에代하야 專門藥治療法의 效果
나려온 목, 가슴, 겨드랑이等에 멍어리가생기고 大端히 [illegible] 結核을 이르키는 [illegible] 本病의 療法

優性 モヒ中毒 ネオボンタージン 發明完成 根本療法 無苦痛 元北海道帝國大學 太黑 熏先生創製 京城府本町四丁目 木村藥房

諸官省拂下品 中古品の大安賣
海軍省拂下 黑色防水布外套 最特品 四圓九十錢
海軍拂下 黑防水布レンコート 一等品五圓五十錢
鐵道省拂下品 小倉詰襟服上下(勞働用作業用)黑色 一等品 二圓五十錢
鐵道省拂下品 黑作業服上下組 詰襟上着一等品純毛紺セル 三圓五十錢 一等品 一圓八十錢

新品靴ョリ丈夫向拂下ノ革靴!!
軍隊拂下 改造編上靴 本品は軍隊拂下中古靴を改加工し 底は半張革に軍隊式金鋲を打込み丈夫向完全品 通勤用作業用非常時に大好評 足袋の文數を御知らせ下さい
中古改造品!!
陸軍茶利革編上靴 最優品一足 四圓八十錢
海軍陸戰隊黑革編上靴 最優品一足 四圓八十錢
新品陸軍式茶革短靴 九圓五十錢
海軍拂下 水兵型黑革短靴 本品は海軍拂下の水兵短靴を改造加工したる丈夫向靴にて大衆向德用品 足袋の文數をお知らせ下さい
海軍水兵短靴(中古改造品) 四圓三十錢
女學生短靴 黑ボックス 中古造品一等品 四圓三十錢
ハガキにて御注文次第直ちに代金引替小包で送ります
名古屋市東區清水町局前 卸問屋 松山合名會社

日本勸業證券株式會社 京城支店 京城府南大門通一丁目 電話本局四〇四五番・振替京城二九七番
來月抽籤 貯蓄債券 一等割增金三千圓附 割引十三回賣値十圓三五錢 勸業十六回 九十錢 初くじ九月!十圓十錢賣
消費節約債券貯蓄 割增金多數附 割增金の樂しみ有
一等割增金二千圓附 勸業五四回 十圓九五錢 七二回 十圓八〇錢 七四回 十圓五〇錢
證券擔保低利貸付 御利用願ふ

明日밤부터(十四日) 東洋劇場에서 劇團豪華船 上演 李瑞求作 四幕五場 眞珠塔
돈, 사랑, 名譽--이三角的離別에 呻吟하는現代靑年男女의斷末魔的苦悶을그린作者快心의大作으로 사랑에살고사랑에죽으려는純眞無垢한處女의마음은復讐에우리는맛당히 [illegible] 울자!웃자!그리고拍手하자!
南宮春作 內外衝突三重奏 同時上演

△東劇晝間映畫▽ 明日낮까지(十四日) 『朱주金금昭조』 外國產名畫二篇 同時上演
十五日낮부터 紀新洋行製作 朝鮮語全發聲 『沈清』(國語版) 金素英 湯錫元 主演 李基世改作脚色、安夕影監督、李弼雨錄音、李明雨撮影
新興키네마社特作品 『泣くな嘆くな若人よ』 立松晃、植木乘二郎、毛利峰子、江川なみ主演
今夜뿐(十三日) 故李人植 原作 李雲芳 脚色 三幕六場 雉岳山 치악산
大好評!大眞劇인雉岳山도今夜가마즈막!속지다고 一夜뿐이니 [illegible] 東洋劇場

官廳半休遂全廢
現下非常時局에對處
今日·南總督의命令으로通牒

[illegible] 일일까지 관청의 서무반휴는 기분화가티 시국에비추어 전폐하기로결정 서서 南총독의 결재를어덧스므로 곳총독의명령으로 관계방면에 「시국에비추어 서중기간에집무시간은 단축하지안는다」는 통첩을 발송햇다

휴스機 옴스크에安着

【莫斯科十二日發同盟】 십이일오전영시십오분 막사파비행장에도착한 세계일주비행의 "하워드·휴-스"씨는 잠깐동안쉰뒤에 다시기상에올라 오후령시삼십일분(일본시간십이일오후일시사십일분) 막사파를 떠나 제삼바천(凱旋)인서 쌕서배리아"옴스크"를 향하여떠낫다.

【옴스크十二日發同盟】 십이일오후영시삼십일분"옴스크"를 향해 막사파비행장을 떠난"휴-스"기는 오후[illegible] "옴스크"에 안착하엿다. 계산하면 "휴-스"기는 "뉴-욕"을떠난이래의 경과시간은 하루하고도 [illegible]시간사십분이다.

【옴스크十二日發同盟】「휴-스」기는 기름을 보급하고 잠깐쉬엿다가 다시비행기에 올라 막사파시간십삼일오전령시(일본시간십삼일오전[illegible])에 「옴스크」를 떠나제사항정인 동부 서배리아「야쿠」를 향하여떠낫다

消防署자리를 神宮外苑으로
京城府서計畫

경성부당국에서는 남대문(南大門)여페잇는 경성소방서(京城消防署)자리를 소공원(小公園)으로 만들고 이를 조선신궁의 외원(朝鮮神宮外苑)으로 하려고여러가지 연구를 하고잇는데 한편 조선신궁사무소 당사자는이부지의 무상불하를 갈둥바면인 세무감독국(稅務監督局)과 절충중인바 인가가나는대로 공사에 착수할예정이다 그리고 이곳이 신궁외원이되는 때에는 그부근에잇는 사범관판사는 매수할터이라고한다

蒙古方面旅行엔 軍의許可가必要
注意事項을總督府發表

「만주」몽고와경(新京發) 연선 이외의 몽고여행에대하야는미리 군의허가를 필요케 되여잇는데 공용 또는회사상의연구조사이외의 목적으로 여행하는것은 사실상 허가가 곤난하리로 총독부에서는 이허가에관하야 다음과가튼 사항을발표하엿다

一、몽고여행자는 꼭현지에서제일가까운특무기관 또는 경무기관에 계출하야 그지시에따러야된다

二、몽고인에게 손해를 주거나 또는 그오해와의감을 살만한 일체행동을 삼가하여야된다

三、당분간 몽고안에서 영리를 목적으로하는 사업의 경영을 할수업다

四、여행목적을 끗마친 뒤에는 속히 몽고로부터떠러나서 허가를어든 기관에대하야 소요의 보고를 하여야된다

그리고 몽고여행에대한 허가는 만주에잇서서는 관동군사령부에서 바들수가잇다

金應洙氏特志

병고현(兵庫縣)지방의 풍우로말미아마 신호(神戶)에 재류하는 조선인이 수재로써 신고를 격거다는 신문의보도를 본 시내송월정(松月町)오십번지 김응수(金應洙)씨는지난일 본사를차저와서 신호수해이재민에게 보내달라고 돈십원을맛기고갓다 김씨는 이전에도여러번 이러한기회에 빠지안코솔선하야 금품을등정한일이 잇섯다한다

賣買激減!
土地家屋如前無勢
四月中府內不動産賣買狀況

경성부 세무과에서 조사한 최근 부내의 부동산(不動産)매매상황을보건대 지난사월 한달동안에 부내 토지매매된것이 팔백육십칠건이고 그가격이 일백팔십구만 팔천팔백 구십이원이며 가옥매매된것이 사백삼십구건으로 그가격이 칠십일만구천구백사십오원에 달하야잇다 이것을 전년동기에비교하야보면 토지는 사백건에 그가격 일백삼십육만오천사백삼원이 격감되여 반감이하로 떠러젓스며 가옥도 건수는 일백칠십육건 가격으로 구만오천오백사십이원이 감소되엿다 그리고 지난일월부터 사월까지의 누계를처보면 토지매매된것이 이천사백구십구건으로 그가격이 육백구만 일천오십칠원이고 가옥은 일천이백칠십삼건에 그가격이 이백팔만사백사십원으로써 전년동기에 비교하면 역시 토지가 건수에잇서서 일천팔백삼십팔건 가격에잇서서 사백팔십육만 삼천오백삼십원이 격감되여잇고 가옥도건수로 오백삼십팔건 액수로 오십칠만삼천구백일원이 감소되여 부동산경기는 여전히 불경기를 계속하고잇다

盲人組合서 百圓을獻金

부내공평동(公平洞)에잇는 맹인조합(盲人組合)의 조합장인창님 방덕근(方德根)씨는 조합을대표하야 십삼일본사로 고동기를 차저와서 현금백원을 내여노코 국방헌금으로 전하여달라고하엿는데 게원들도 그들의 적성에 크게감동하엿다고한다

贈呈된香華料分配

지난칠일 사변일주년기념일에 경성부주최의 전몰장병 위령제 집행에당하야 각방면으로부터증정된 향화료(香華料)가 삼십구건으로 유배오십이원에 달하엿슴으로 경성부에서는 이를신상일 부내에사는 전사자 유족에게대하야 분배증정하엿다

朝鮮語辭典完成한 文氏에五十圓
李炫九氏가寄贈

구년동안 단독으로 심혈을경주하야 조선어사전을 완성시킨 문세영(文世榮)씨의 업적은학계에 중요할뿐안니라 사회적반에 크다란 세세이숑이르켯다 그리하야 수집어(蒐集語)가 [illegible] 방대한 [illegible] 하글학비세상에 나올 것을 기다리며 이러캐거창한일을 한 문씨의 성의에감격한 시내 광화문통(光化門通)일백삼십일번지 이현구(李炫九)씨는 십삼일 돈오십원을 출판비용에 보태여달라고 문씨에게 기증하엿다

豪雨로家屋崩壞

【新昌】 함남북청일대는 오래동안 비가오지안허서 일반농가는 우려중이던바 지난구일부터 비가오기시작하야 십일새벽까지 쪽 [illegible] 우로나려 신에명가족이 사는 집한채가 문허지엇는데 [illegible] 가족들은모두 중경상을당하엿스나 생명에는 아무관계가업다고한다

各道에移民協會
集團移民의指導、訓練等必要로
總督府에서積極獎勵를通牒

총독부에서는 이민에대한 사무의 원활을 위하야 도이민협회(道移民協會)를각도에서 설립하도록 적극장려하기로 되엿다 원래 이민사무는 요지음 더욱 번거로워저서 특히집단이민에대해서는 그조사지도 훈련 이주준비 부담정리등 수송에 관한것까지 처리하게되어 그원조기관이 필요하다하야 지난달에열렷던 이민사무담임자 타합회에서도 협의하엿섯스나 구체적으로 실현을 보지못한채 잇는것이다

그런데 이지음경상북도에서는 이민노동자 보호협회(移民勞働者保護協會)전라남도에서는 이민협회를 설립하엿스므로 그처치가 매우 조타고하야 이것을각도에 설치、이민사무처리에 도움이되도록 장려할방침으로 각도에 통첩을 발하엿다

獻金近三百萬圓
關東軍、海軍部에

【新京八日發同盟】 지나사변이이러난후 일주년기념일을 마지한 칠일까지 만일년동안에 관동군(關東軍)과 주만해군부(駐滿海軍部)에답지한 국방헌금은 이백칠만십오원육십육전이고 휼병금(恤兵金)은 팔십구만칠천[illegible]전으로 합계 [illegible]에 달한다고한다

破記錄·四千圓
各圖書室書籍만竊取
自首男은意外의大盜

시내 소화교、중화교、전문대학등의 각학교도 서실만전문으로 기픈밥을라서 처업하야 고까의 의학서적파 사전만골라취한 사나이가잇다—지난 유월중순 시내권농정(勸農町)일백오십이번지 어재옥(魚再玉)(二五)이란사나이가 사랑하는 안해에게 실직한것을 아르켜주기가 딱하야 성대(城大)의학부 연구실에 칠업 의학서류(醫學書類)를 간을훔처 팔앗는데 양심에가책을 어찌할수업다하야 본정서를 차저와서 자수한 일이잇서 그당시의 소문거리가 되엿거니와 그뒤 아무리보아도 불심한점이 만흠으로 본정서에서는 그뒤 엄중히취조한결과 이사나이는 의외에도경성제대연구실을 위시하야 전문 중화 소화등 삼십여교의 도서실에 침입전후 수백여권의 서적을 훔치되 모두갑비싼 사전파 의학서적을 전문으로 절취해먹은 사실을 자백하엿다 피해액은사천여원에 달하며 이사나이가 자백한것은 근근자기의 범행이란 로될것을 깨닷고 범행의 열부를자수하는동시에 범죄동기를애처럽게 꾸며가지고 동정으로써 용서를 밧겟다는 거짓술에 불파한것이 판명되엿스므로 계속하야 여죄를 추궁중이다

連日天氣陰鬱에乘勢
赤痢의暴威猛烈!
다른染病은아직無氣力

날씨가 매우음울하고 장마가계속되어 이것이 일반에매치는 보건상영향은 매우심각한바가잇다.

더구나 이때는 적리(赤痢)가 발호하는 시기로써이즈음 다른 전염병은 고개를 숙이고잇스나 적리만은 그대로창성하는 형편이며 상해동지는 호열자로 소란한중이라 조선의 해안일대(海岸一帶)는 특히 이무서운 병마의 침입을경계하기에 여념이업는상태이다. 총독부 위생과에서 조사한 지난오월중의 전염병발생상황을 보드라도 환자총수는 [illegible]로 일천오십일명의 감소를 보히고잇스나 하필적리만은 이백오십삼명이나늘고잇는 형편이다

柳療養病院長
一年만에歸任

안식교(安息校)선교사로 시내회기리(回基里)에잇는 경성요양병원(京城療養病院)원장 유재한 박사가 금십사일 오후 [illegible] 「아끼쓰끼」로 조선에 다시도라온다

유재한박사는 지금으로부터 십년전 안식교선교사로서 조선에드러와 요양병원을세워 비참한 사람의 보건을 위하야 노력하여 가지고잇섯는데 작년팔월 부인이 조선에서 별세하자 미국에다 도라가서 다시 조선엘 오지안키로 되엿섯는데 유박사가 간뒤에 안식교도들과 요양병원 자들이 유박사의 인격을 흠모하야 미국에잇는 안식교 본부로 유박사가 조선에 다시오도록 해달라는 진정을하엿스므로 서양사람의 습관으로 부인이죽은 땅에는 다시가지 안는다는것도 물리지안코 다시 조선에도라와서 요양과 교육사업에 힘쓰기로되엿다 (사진은 경성역에도라온 유재한박사)

艱苟한麻浦學院爲해
納涼演藝大會
DK管絃團外名歌手等總出演
十三、十四兩日間府民館서開催

부내마포정(麻浦町)에잇는 초동교육기관마포학원(麻浦學院)에서는 그동안교사를 증축하노라고 그비용의 일부를 융통하여썻는데 이것의변제 자금을엇고저 그학교후원회주최로 십삼·십사 양일간 오후여덟시부터 태평통(太平通)부민관에서 납량연예대회(納凉演藝大會)를 연다고한다 이연예대회에 출연할 사람은 D、K、관현단을 비롯하야 중앙푸대 각「레코-드」회사의 전속가수、동이라고 하며 입장료는 오십전이라고한다 그리고 전기마포학원은 지금으로부터 십칠년전에 창립한학교로 주의아동을 수용하야 삼백여명의아동이 잇다고하며 현재유지들의 기부금이답지하고잇다는데 일반은 이교육사업을 원조하는의미로만히와주기바란다고한다 그리고 입장료는 오십전이라한다

避하던「트럭」
電柱와衝突大破

【永登浦】 이일오전 여덟시 [illegible] 부내한강통(漢江通)[illegible]번지 앞에서 [illegible]

洋裁縫講習會
本社學藝部後援으로
今日부터一週間朝陽幼稚園서

부내 연지정(蓮池町)조양유치원(朝陽幼稚園)주최와 본사학예부 후원으로 오는십삼일부터 동원에서 양재봉강습회를 연다는데 [illegible] 일주일동안 매일오후 일시부터 [illegible] 강사는 양재봉계의 권위인 임정혁(任貞爀)씨라한다 그리고 [illegible] 남녀 아동복파와 [illegible] 간단한 양복을 재봉하는 법 [illegible] 회비는 일원으로서 [illegible] 가지고오기를 바란다고한다

濁流에휩쓸려
八十老人溺死

【義城】 경북의성군다인면달제동(多仁面達提洞)에 거주하는 박석구(朴錫九)(八一)라는 노인은 [illegible]부터 계속한 큰비끗해 전답에 피해나업나하고 들구경을갓다가 도라오는길에 동리앞 하천을 건느러다가 나려흐르는 탁류에 휩쓸려 무참히도 익사하엿는데 [illegible] 소원도 현장에급거하여 시체수사에 노력을다하엿스나 아직발견치못하엿다한다

色鉛筆

사람이잘낫나 돈이잘낫나 한가? 돈이귀하지! 사람이귀하지! 이런말을흔히들 듯기도하고 또 이런사실을보기도한다◆하기야 사람이 만든돈이라 만들기도 마음에의하야 만들엇고 쓰기도 마음에의하야 쓰는것이나 그반대로 돈이사람을 호령하기도하고 지금세상은 돈이사람을 호령하는판이다만큼 그결과가 더 뚜렷하다◆본래 사람을 위하다는것도 그인품과 지랑과 그인품을 존숭하는것이 [illegible] 사람보다 돈을위하야 사람마저대접하는일도잇다 이러해서 세상은복잡한모양인데◆그러면 돈이귀하다는 근본이치는 어디잇느냐 면 돈이돈만으로 갑시잇는것이 아니고 돈을가지면 물건을 마음데로 바꿀수잇기때문이다 [illegible] 백원짜리지폐가 종이조각 그것만으로는 백원의가치가 못되는것도 돈이치이다◆그러나 [illegible] 어디까지나 허하지는안는다 개인이 돈을가지면 무엇이나 마음대로된다는세상은 벌써 옛날로줄어가려다◆아는가 돈의귀한맛! 사람의 귀한맛!

오늘의放送

◇第二放送 ◆午後六時三〇分 어린이新聞 ◆六時五五分 어린이新聞 ◆七時講演 金斗憲 ◆八時消防에對하야 ◆八時三〇分~九時三〇分 우습거리의밤 ◆一〇時一〇分

◇第一放送 ◆午後六時(東)童話 ◆七時三〇分 ◆六時二五分(城)講演 ◆七時四〇分 ◆八時(東)合唱 ◆八時 ◆八時五〇分 浪花節

天氣豫報

豫報 흐리며 때때로개이겟다

明日도갯다

昨日最高 二四度二

同 最低 二二度六

十三日朝最低 二二度九

同 正午 二七度二

高句麗宮址로看做되는
清岩里土城發掘調査
寺址도數處發掘·學界期待多大

【平南支社發】 평양을 중심으로 한 근접일대에는 락랑(樂浪)을 위시하여 고구려(高句麗)시대의고분(古墳)기타유적이 만히남어잇는중 그중에서도 고분은 매년 고고학자들의 손으로 발굴되여 우리선조들이 남기고간 고대문화를 더듬을만한 출토품이 수업시 발굴되고 잇섯는데 금년에는 경비가 업서 부득이 발굴을 중지하게 되엿다고 전하더니 소천(小泉)평양 박물관장의 노력으로 근일 락랑고분과 고구려유적발굴을 하기로되여 준비중이다

위선 조왕리(助王里)락랑소학교(樂浪小學校)를 중축하고 운동장확장공사를 실시하는동 락랑고분이 자연히 파괴되므로 이기회에 고분을 발굴키로되엿고 그후계속하야 주암산(酒岩山)부근 청암리(淸岩里)일대에 잇는 고구려왕궁지(高句麗王宮址)로인정되는 토성을 발굴조사하기로되엿다 이토성(土城)은 [illegible] 지하로 [illegible] 고구려시대의 와편(瓦片)파 대규모의 초석(礎石)이 나타나 이외지는 분명히고구려 시대의 왕궁이 섯든곳으로 추정되므로 이것을 대규모로또는 조직적발굴하기로되여 그결과가 크게 주목되는바이다

이토성은 아직까지는 정식으로발굴조사해 본일이업고 부근일대의 밧가운데서 만히나타나는 개와장등으로 보아 고구려의성지로만 확정되엿는데 생각컨대 고구려의 제이십대 장수왕(長壽王)이 압록강대안 국내성(國內城)에서 남으로 발전하야 최초로 평양에 동읍을 옴겨슬때에 차엇든 성이어니엇든가하는 만주이 학자간에 유력하야 언제인가 한번은 대발굴을하야 할것으로 지목되고잇든것이어다 이번은 그곳지하여서 다수의 개와와 [illegible] 그리고 이외에 평양부근의고구려시대의 사원(寺院)의 유적을 발굴하기로 되엿는데 절차로 중요시되는곳은 평원군(平原郡)안에잇는 원오리폐사적(源五里廢寺跡)을 위시하야 오야리(梧野里)와원암리(猿岩里)에 옛날사원이 잇스므로 전부 세밀히발굴하야 옛날의 전성했던불교문화의 일부나마 탐색키로되엿다 이곳은 성대(城大)등전(藤田)교수와 평양소천박물관장이 담임키로되고조선일보의 비보(秘報)는 [illegible] 고 총독부발굴과의 비보(秘本)이 조사에당하게 될터로국부적발굴이나마 기대되는바크다

待望의東京大相撲
今日부터開幕
壯觀·萬餘觀衆雲集

조선군사후원연맹(朝鮮軍事後援聯盟)주최의 동경대상박(東京大相撲)은 마침내 금십삼일정오부터 남대문 전소방서(前消防署)자리에 가설한 대상박장에서 성대하게 개막되엿다 인끼의초점이되여잇는 화강(和歌嶺)、쌍엽산(雙葉山)、남녀천(男女川)등의용자를보려고 모여드는중으로 오후한시경에는 이만명을수용하는 대상박장이 가득찻다 이날관중에는 백의용사(白衣勇士)를 비롯하야 시내각소중학교 학생들까지 총동원하야 끗바틀이루운가운데 경기는 진행중에잇는데 본격적경기는 오후네시경부터 버러질터이라한다 (사진은개막된 동경대상박)

乃城稅務署第三種
所得調査委員會

【奉化】 경북봉화군 내성세무서에서는 지난칠월일일부터 오는 십오일까지 계속하야 내성세무서관내의 제삼종소득조사에대한 조사위원회를 열엇는데 조사위원과 구별은 여좌하다

奉化郡 姜敦元 李源永 榮州郡 金鴻卿 栗野俊雄

開通式을擧行
金泉甘川鐵橋

【金泉】 경부선김천 천감천철교(金泉甘川鐵橋)는 작년이래 만일개년인 지난구일에 준공되어 당일오전 [illegible] 개통식(開通式)을성대히거행하엿다한다

스포-츠

全日本都市卓球 朝鮮最終豫選
廿四日本社講堂서

조선탁구협회주최의 제칠회전일본도시대항탁구대회조선최종예선대회는 래이십사일오전열시부터 태평통조선일보사대강당에서 칠지역대표선수이십오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전이 전개될터인데 각지방대표선수의 진용은 추후발표하리라한다

南朝鮮遠征
京城高商蹴球部

경성고상축구부에서는 이번하기휴가를 이용하야 대구、부산방면으로 원정차 십삼일오후열시십분 경성역발열차로 장도에오를터인데 일행은 십사·오양일에는 대구에서 대구의전파 계성중학파 십육、칠양일에는 부산에서 부산중학파 동래중학파 대전할터인데 선수는 다음과갓다한다

◆部長=高木鉎雄◆委員=朱寧煥◆選手=金應顔、安光戰、朱在明、林炳奎、孫翰柱、鮮于熊、金熙榮、朴完善、洪啟善、鄭均植、曹台煥、趙俊鍾、鄭壽昌

朝鮮硏武館暑稽古開始

조선연무관에서는 금년도 하기서계습을 십삼일부터 이십이일까지의 십일간(매일오후칠시로 팔시반까지)동관도장에서 거행하기로되엿다한다

都市對抗卓球
京畿道代表決定

조선탁구협회주최 제칠회전일본도시대항탁구대회 경기지방예선대회는 십일오후일시부터 인천세관탁구장에서 개성부대인천부의 결승전을 행한바 다음과가튼 전적으로 개성부가 우승하야 경기도 대표로 결정되엿다 그리고 북조선、서조선、중부조선、전남、남조선의 각지방대표도시를 결정하기로되엿다한다

【開城府】3-1【仁川府】

印在德 3-1 三戶

崔根善 3-1 寺田

(印在德、洪性祐) 1-3 (寺田、三戶)

文錫璜 3-2 近藤

洪性祐 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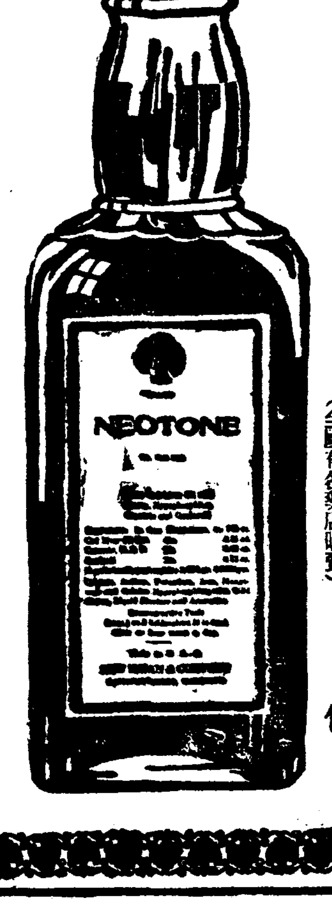
立敎卓球團來征日程

旣報=朝鮮卓球協會의 招聘을바더來征하는 立敎大學卓球部는 來廿日朝釜山에 上陸한後 二十一日에 大邱에서 一戰을 交한後 二十二日午前八時에 京城驛에 到着하야 二十三日午後二時부터 太平通朝鮮日報社大講堂에서 全京城軍과의對戰을 마치고 二十四日午後三時三十五分車로 離京하야 滿洲로 向하야 奉天、新京、大連等地에 轉戰할터이라한다

그라이더-講習會
八月十日부터開催

조선항공연맹주최와 체신국후원의「그라이더-」훈련하기강습회는 래팔월십일부터 삼십일까지 이십일간 경성비행장에서 매일 오후이시로칠시까지 개최하기로 되엿는데 참가희망자(특히 중등급전문학교생도를 환영함)는 회비일원을첨부하야 팔월륙일까지 체신국내 조선항공연맹에 신청하야주기바란다고하며 정원은 육십명、입회자격은 만십오세이상 이십오세까지의 남자에 한한다고한다

夏節은危險한時期
榮養素를供給하자



夏節이되여 날이몹시더우면 누구나食慾이줄고 體力이減退되여抵抗力이弱하여지는까닭에 病弱한분은勿論 健康한사람도 消化不良과夏瘦症等에걸리기쉬울습니다。

이것은 夏節이되면 大槪淡泊한 菜食을 主로하는까닭에 榮養의供給이 急速히低下되는關係입니다。그러므로 무엇보다身體에 榮養을充實히하야 體力을强化하면 夏瘦症이나 다른慢性病等의 誘發을 防止할수잇습니다。

네오톤(NEOTONE)은 人體에絶對必要한 비타민榮養素를供給할뿐아니라 呼吸器와胃腸을튼튼케하는 有效成分으로써 消化機能을活潑케하야 食慾을增進하고 體力을增加하며 身體를强壯케하는再建設的作用이 卓越하므로 平素에病弱한분이나 急速한榮養低下로體力이減衰되는분은 本劑로써 榮養을供給하고 體力을增進시켜 夏瘦症으로因한 傳染病·呼吸器虛弱·胃腸病等을 防止해야되겟습니다

(本劑를服用하실때는먼저醫師에게問議하야주십시오)

適應症 肺結核·神經衰弱·萎黃病·貧血症·腺病質·食慾不振·肋膜炎 産前産後·急慢性氣管支加答兒·一般虛弱·榮養障碍·心臟疾患·病後恢復期

包裝 小瓶 中瓶 大瓶

(全國有名藥店販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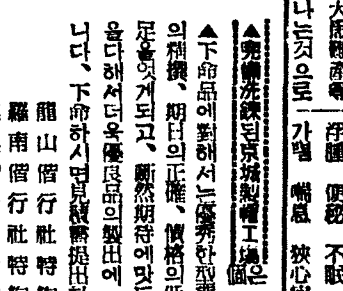
네오톤發賣元 株式會社 柳韓洋行 京城·大連·上海

大滿測量學院生徒募集
第五回 奉天

◀出願期七月卅一日◀考査日八月四日◀開學日八月五日◀科目平板測量、高低測量、三角測量、製圖、數學珠算、滿洲語教授

◀學則請求時要三錢切手◀奉天市平安通十二番地(電話二·五七二〇振替奉天一一九六)

世傳秘藥
[illegible]



軍、警察、消防、學生、團體、制帽、制服、官衙、學校、用品各種 製帽帽子類 [illegible]

京城製帽店
營業所 京城府南大門通四丁目
振替京城一九一〇九番
電話 [illegible]
工場 京城南大門通四丁目
分工場 京城府和泉町一五二
各學校指定店

頭痛解熱에 セタルピン(全劑)

强力 三省殺虫劑
세계적신발명 빈대잡는약
人畜無害 効力絶對保證
삼성살충제의자랑

强力三省殺虫劑總販賣元 三省聯合新藥研究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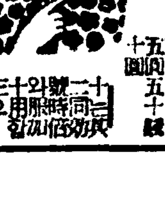
不治아니다
中風·高血壓·神經痛
原因을明白히한
今津博士의훌륭한研究

(研究中의今津博士)

今津研究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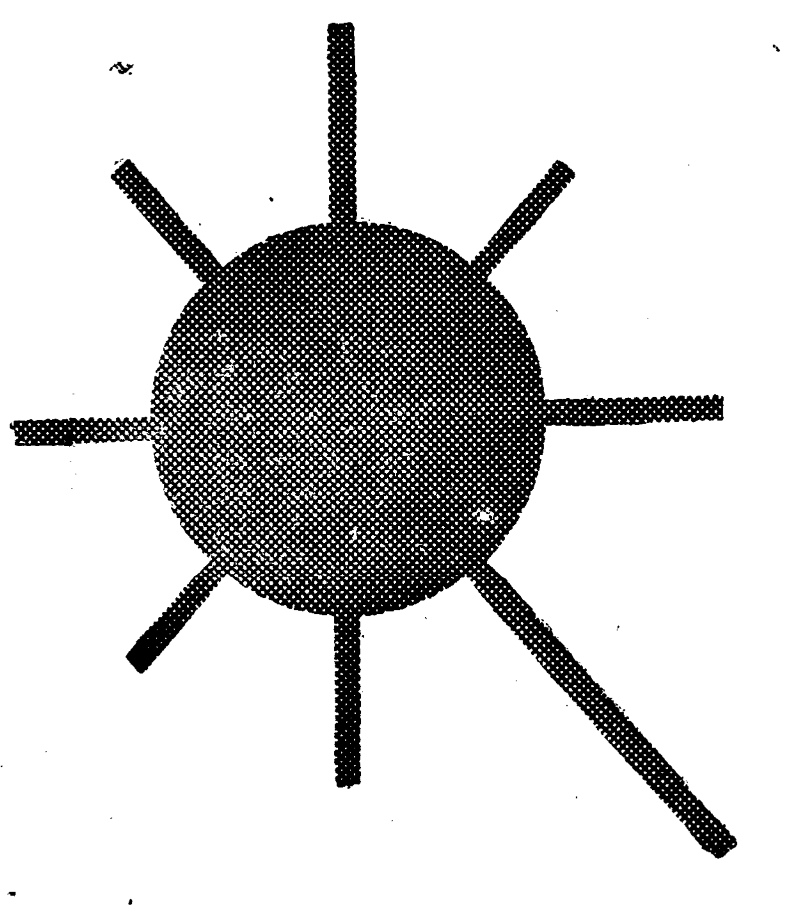
恩給
山口屋小動物園
性器强大藥
男子性器短小全治 早漏에百發百中!

早漏防止
五行公司藥品部



少年단 十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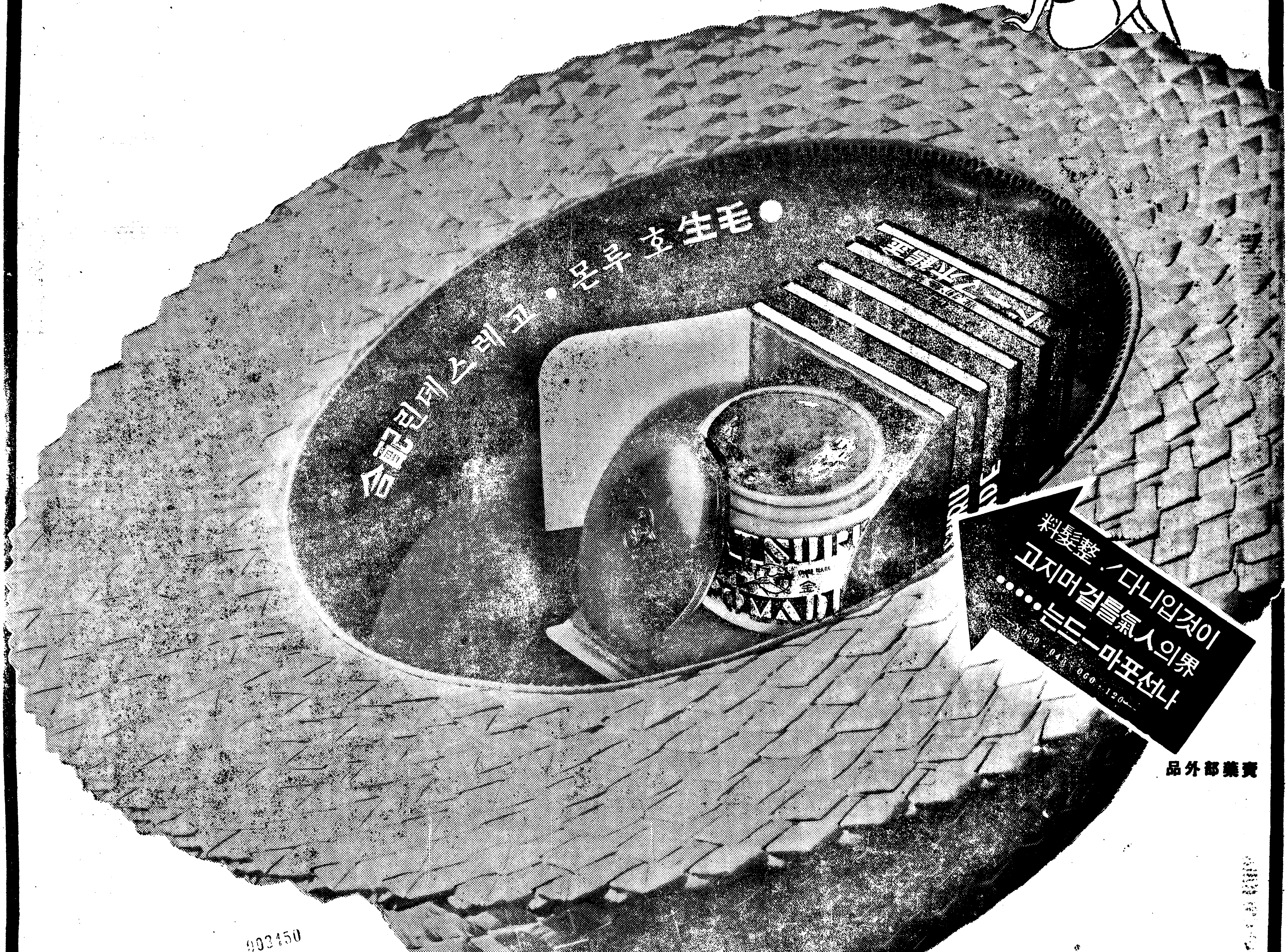
●キンツル의眞價는여름에안다!



여름에하늘거리는男
性의頭髮!
콱찌르는시큰한냄새—
못씁니다. 金鶴을쓰십
시요! 처덕거리잔코
땀에흘러내리잔코보송
보송하고도헐크러저잔
는벗자욱과 은은한香
薰이비저내는爽快感이
終日당신의頭上에남아
엇습니다

●配合된藥品 과그 効果

毛髮에힘찬成長力을 주어서折毛・拔毛・裂毛 비듬・가려움等을 一掃하는코레스테린! 金鶴은그適量配合에일직이成功한 로마ー드입니다 金鶴을使用하면 頭髮에저러서酸敗할念慮가업고도로혀毛根을元氣잇게하고 氣乳을벌려서호르몬을浸透시키므로 頭髮을숫이만코겸게합니다 게다가獨特한潤・香氣・洗髮時잘빠지므로 整髮料로서는정말完璧입니다



賣藥部外品

903450

—純植物性—

金鶴ポマード

긴 쓰 루 포 마 ー 드

金鶴香油 本舖 株式會社野村商店

갓난애기때부터 올부처줍시다

조흔습관 올흔지도법다섯가지

아이들의 조치못한 습관은거의다 어머니의 잘못키른탓으로 되는것입니다. 한번 조치못한 습관이 배워지면 좀체로그것을 고칠수가 업게될으로어려서부터 다음과가튼 조흔습관을길러주면 아이에게도 조코어머니도 기르기쉽게됩니다.

一、뒤보는습관

늘주의해서 오줌똥을 가리여주면 나서 석달부터 벌써때를마처 누려고하며 반년만되면충분히 뒤보는 습관을 가지게됩니다. 그러나 그대로 버려두면 세살을 먹어도 오줌똥을 가리지못해서 기저귀를 차고잇지안흐면 안되게됩니다.

그리고 뒤보는 습관을 가지게하는것은 아이들의 심리를잘인도하는데 대단히 조흔일입니다.

이와가튼 습관으로 말미암아 큰다음엔 몸을 깨긋이 거둘줄아는 조흔아이가됩니다。뿐만아니라 첫째 몸에 조흡니다。기저귀를 차고잇스면 다리와 허리의 운동이 부족해서 발육이 잘못되고 더러운 기저귀때문에 발바가다루가튼것도 생기고 저즌것을 차고잇스면 냉해저서소화불량을 이르키기도 쉽습니다。

아조 갓난애기에게 오줌똥을 누일때는 시간을보고 때를마추어 보이면됩니다。

가령 자고깨 직후라든지 젓먹이고 삼십분후쯤이라든지 여러케 때를마추어 누게하면 자연그때에가서는 오줌이나 똥을누게됩니다。

그다음 한살쯤 죽일년쯤되거든 오줌누일때는 쉬-쉬한다든지 똥눌때는 응가-응가한다든지 이러케해두면 여러분도 만히 경험하시다시피 애기들이 제입으로 어머니에게 오줌똥이 마렵다는것을 알려줍니다

二、목욕하는습관

우리네 가정에는 각가정에목간통을 노흔집이 매우 드므니까 불가불 공동목간으로 가게됩니다。아이들은 어째든 늘깨끗이 씻처주어야 조흡니다。

목간에 자조못가면 하다못해 집에서 물을데여 가지고라도늘씻처주십시요。애기들은 씻처주면 잠을잘자고 몸과마음이 안정하게됩니다。

여름엔 특별히 때가끼기쉬우니까 늘씻처주도록하십시다。

목깐을 시키는데는 특별히주의해야할것은 어른들하고 함께들어가서 어른이 두세시간 목간을 다할때까지 아이를 그대로줄곳에 두는것인데 그러케하면 해롭습니다。아이들은 길어야이십분동안까지만시켜주십시요

그러므로 애기를 먼저 재버르게 씻처서 수건으로 말장하게홈처서 내여노흔담에 어머니가 시작할것입니다。

三、울지안는습관

아이들이 조금만해도 울음을

비끄처뒤

베어노키나 공연히 어리냥삼아 울고잇것든것은 아조 못나는버릇입니다。

이러한 버릇이잇는 아이들이 울때마다 먹을것을 주어 달래다던지하면 아이의 버릇은 점점더 서나서되고 자라도에도 남에게 의뢰심이만코 의지가약해서 못씁니다。

그러므로 달려가다가 넘어지는때도 저혼자 이러나도록할것입니다。어떤아이들은 저혼자서라도 넉넉히 이러날때도 그대로 엎드러서 이러나지안코어머니 이르킬때를 바라고잇는것입니다。

그뿐만아니라 모든일에우는것을 이용해서 울기만하면 무엇이나되는줄 아는것은 아조잘못된 습관입니다。그러치안코 아이들이 정 울거든똑 몸에무슨고장이나업나 잘살펴볼것입니다。또는 어머니가 조금만 어디가도 따라가겟다고 울고떼쓰는버릇도 고처주어야합니다。

四、자립적습관

아이들은대개는 어머니가 데려고 자는데 그건 아조재미업스니 혼자자게 자리도 따로해주십시요。또는 밥먹는것도 어른상에서함께 먹게말고 어른보다 좀일즉이 먹게해주십시요。

五、흙과친하는습관

할수잇는대로 밖게나가 다른 아이들과 석겨서 놀게하고 흙작난 모래작난을 하게하도록하는것이 조흡니다。그리고 고양이나 강아지가튼 적은동물을 사랑하고도 친하게하게해주십시요。

六、나뿐일에흥미를 가지게말것

아이들이 어른의 머리를 잡아다린다거나 큰소리로 욕을하면 어른들이 웃거나 재미잇다고 하면 아이들이 점점더흥미를 가지고 자꾸 그러케됩니다。그럴때는 모르는척하십시요。그러면 흥미가업서 그러지안습니다。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조흔습관을가지게하는것이 제일인데 그러자면 어머니의 정성이필요합니다。

생선가시가 목에걸렷슬때

생선을 먹다가 가시가 목구녁에 걸렷슬 경우에는 어떠케할까? 머리우에 생선 가시를 언고 냉수를 먹으면 나려간다 하지만 그건 럼문이업는 소리고 밥한수까락을 입에떠너코그대로꿀떡 생키면 대개는내려갑니다。그러나 그보다는 생개란한개를까서 그대로 생켜보십시요 확실하게 가시가 내려갑니다。

우리차지

제비

제비는 봄에와서 가을에 도라갈때까지 약일백구십일 가량 이곳에서 머문답니다。하로에 평균 일백마흔마리 벌러지를 잡는다 하니까 여기엇는동안에 제비한마리가 잡는 벌러지는 여만육천육백마리나 됩니다。제비는나쁜 벌러지를 잡는새니까 사람여 잡어서는안됩니다。

(글쓴사람 황경희)

애기낫는것이란 부인네 일생의 큰일이에요

산모와 애기의 건전을위해서 엄신중에는어떠케할까 ③

女醫師 許英肅

이것은 그대로내어버려두면 태아는물론 태모의 생명을 일허버리는것이니 태아의 한생명을 희생시켜 태모의 생명만을 구하게다는 목적입니다 그러케 가끔 산파의사가 그저유산을 서키는수가 잇습니다 이것은 선리고가서 주사도노코 기계도쓰는체해서 정말유산을 한것처럼보입니다。그러하면 이상하게도 그이튼날부터 그러케 심하던 입덧이 씻슨듯이 감해버리구 밥을 잘먹게되구 업때까지 드려누어 꼼짝도 못하던 부인네가 기동을하게되고 완인이됩니다。

그러나 배속에어린아이는 점점커저서 배가 불으게되면 그때는 그것이 무슨병으로알고 서너달전에 임신을 분명히 햇는데 웨배가이러케 커지느냐고 병이아니냐구 무른러 오는일이 잇습니다 이러케도 입덧이란는것이 신경파의 관계가 잇는것입니다。

그럼으로 약조중의 치료방침은신경을 먼저 안정시키는데잇습니다 조흔치료를 바다서약조증세가 전부 업서젓다가도 무슨원인으로 신경의 자극을 바드면다시 약조중이 이러나는것입니다。

그러므로 태모의 입덧은 그부인의 마음가지기 여하에 따라 스스로 고칠수가 잇습니다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고 메식메식하드래도 어것어 병이라고 방속에 기피 쓰고드러누어버리지말고 『이것은 내가 마음먹기여하에 따라 능히 고칠수잇는것이오 병이아니다』하는생각을기피 가지고 아무쪼록적당한 산보도하고 실치아니한 음식을 조금씩 자조 취하여 위장과신경을 살살 달내고 안정시키는 태도를 가질것입니다。매그로환경을 바꾸는것도 치료의 한방법이니 시집사리때하던부인은친정에도 좀 가잇다오구 음식물을 다른집음식을 바꾸어 먹기두하노라면 자연히 날것입니다 그러나 원래부터 위장이 약하구 목이 약한부인은 아무리마음을 지어먹어두 안되고 신경을 달래도 낫지아니하는것이니 이때에는 자기가 기피 신용하는의사의 치료를 바들것입니다 이병은 의사를절대로 신용하지아니하면 낫지안는것이니 의사의말한마디와 약한병으로 곳낫는수가잇스나 아무리 오래약을 쓰고 주사를마저도 낫지아니하는수도 잇습니다 대개입덧은한달쯤지나면 업서지는것이지마는 부인에따라 열달내내 메식겁고 가끔 토하는분이잇습니다 이러한부인은 치료에 착목점을 심신의안정에두고 기분을바꾸기위하여 야외산보를 가끔할것 잠자는시간을 만히취할것 음식을고르게하게 자조자을 주의하실것입니다 …니하는것은 대개 소화기의 증세임으로 이것을혼히소화불량증으로 잘못보기 쉽습니다 전문의사도 가끔그러한 오진을하기쉽거든 상식적으로 잘못생각하기가 용흐무괴한 일이외다 입때것다달이 잇섯던월경이뚝끈치고 속이메식하고 까다여러가지입덧의 증세가 잇스면 십상팔구는 임신이려니 생각하는것이올치마는 그러타고 이것을 꼭임신이라구할수는 업습니다 자궁에고장이생겨서 월경이 끄리고 입덧비슷한 증세가생기는 수도잇고 이와반대로 소화기에 병이 생겨서 이영향으로 잇서야할 월경도 번지구 입덧파 가튼 증세를 이르키는일도 잇습니다 그뿐아니라 임신이면서도 월경이 끄티지아니하고면달씩 보이는일이 잇스니 이때야말로 보통사람으로는 임신인지 아닌지 알수업게됩니다 그러므로 이상과가튼 의심스러운 점이 조금이라도 잇는경위에는 전문의사의 진찰을바더 분명한 판단을 구할것이외다 그러면우리 전문의사는 임신인지 아닌지를 언제부터 확실히 알수가 잇나 최근에 『쏀데씨반응(反應)』이라는 시험이 잇는데 어것은 임신한 부인네에 아침첫소변을바더서 『모루못든』라는토끼에게 주사를합니다 이주사를 바든 토끼를 이십사시간후에배를째고 난소를 검사해보면 아이를밴부인의 오줌일진대 난소가 붓고 충혈이되여잇습니다이와반대로 토끼의난소가 붓지도 안코 충혈도업스면 그오좀은아이를 배지아니한 부인의것이라는것이 판명됩니다 이방법은아이밴지 일주일이면 나타낼수잇는것이니 애기인지 아닌지를한달만에 아라낼수잇는것입니다。

長篇小說 愚氓 【80】

朴泰遠 作 洪祐伯 畵

近東位의 憂鬱(2)

(흥- 대체 어떠컴 작정이란 말이구?……교의 일이야 어떠게 되며 가보지간에 개집허구 그러게 놀려나 다니면 만사가 태평이란 말이가?…… 아무리 대원님이 하는 일이기는 하여도 도무지가 근동위에게는 못마땅하여, 그때 잠깐 쓰디쓴 입맛만 쩍쩍 다시고잇스러니까 문득 사람 대문 바게 인기척이 들리며 다음에, 얌창 머다지에 부름 유리조각 넘어로 바까를 흘깃 내여다본 갈록이가

『아, 병려사께서 들어 오십니다』

하고 보한다。

(병려사가? 병려사가 들어온다?……』

그저게 밤에 사리원으로 도라 갓서야만 할 병려사다。그 병려사가 또 오다니 그럼 아직까지 나려 가지 안엇던란 말인가?——근동위가 내심으로 잠깐 의아쩍게 생각하고 잇스러니까 파나마를 벗어서 손에다 들고, 부채 대신삼어 얼굴에다 바람을 보내며 방으로들어 온 병려사는 채 자리에안기전에

『게시냐?』

하고 갈록이편을 향하여 뭇기부터한다。

『아니 게시옵니다。』

『아니 게시다고?아-니 이러케 일찌기 어데로 출입을하셋단 말이냐? 어데로……』

병려사는 바람벽에가 걸리여잇는 시계를 치어다 보며 몰엇다。시계는 저금 오전 아홉시 십분전을 가리키고 잇다。

『아마, 어제 아침에 나가서서 안도라오섯나 봅니다』

갈록이 대신에 근동위가 대답을 하엿다。

『아-니, 그래, 웬일이슈? 사리원에는 여지것 안나려갓습디까?』

병려사가 자리를 잡고 안기를 기다리며 그는 한마디 물엇다。

『웨-?……나려 갓섯지, 나려갓섯저。나려갓다가스리 되돌아서 도로올라오는길이랴우 또 올라오는길……』

병려사는 부채대신 부치고잇던모자를 바바닥에다 노코서책상우에잇는 경말태극선을집어 들면서 문득가만한 한숨을흔한다。

근동위는 다시 꼿 뒤를 이어 물으려다 말고 문득 생각난듯이 갈록이의 얼굴을 치어다보앗다。그때까지 미다지 여페가 서잇던 갈록이는 그뜻을 알어차리고 병려사가 아무러케나 버서노흔 모자를 집어서 기둥옷에다 걸어 노흔 다음에 조용히 마루로 나가 건너방으로드러갓다。

『되도라 올려 오다니 아니그래 무슨 일로 해서?』

근동위가 약간 미간을 찡그리며 뭇는 말에 병려사는

『무슨 일은 무슨일。안악 최가놈의 집 일이저 최가놈의 집일……』

칫어 뱃듯이 한마디 하고서 문득 생각난듯이,

『아-니, 더웁지도 안소? 유월 염천에 창호를 어러케닷고 잇스니, 창호를……』

다서 좀더 매렬한 형세로 부채질을 한다。

근동위는 자리에서 일어 나 얌창 미다지를 활짝 열어 노흔 다음에 창틀에다 팔을 언저 노하던 바위을 내리고 다시 안저 근심스러히 병려사를 보고 물엇다。

『최가 집 일루 해서? 웨? 또 무슨 일이 생겻단말이요?』

『무슨 일이 생겻다는게 아니라 어제 내 잠깐 안악에가서 최이회를 만나보지 안엇겟소? 최이회를……』

『그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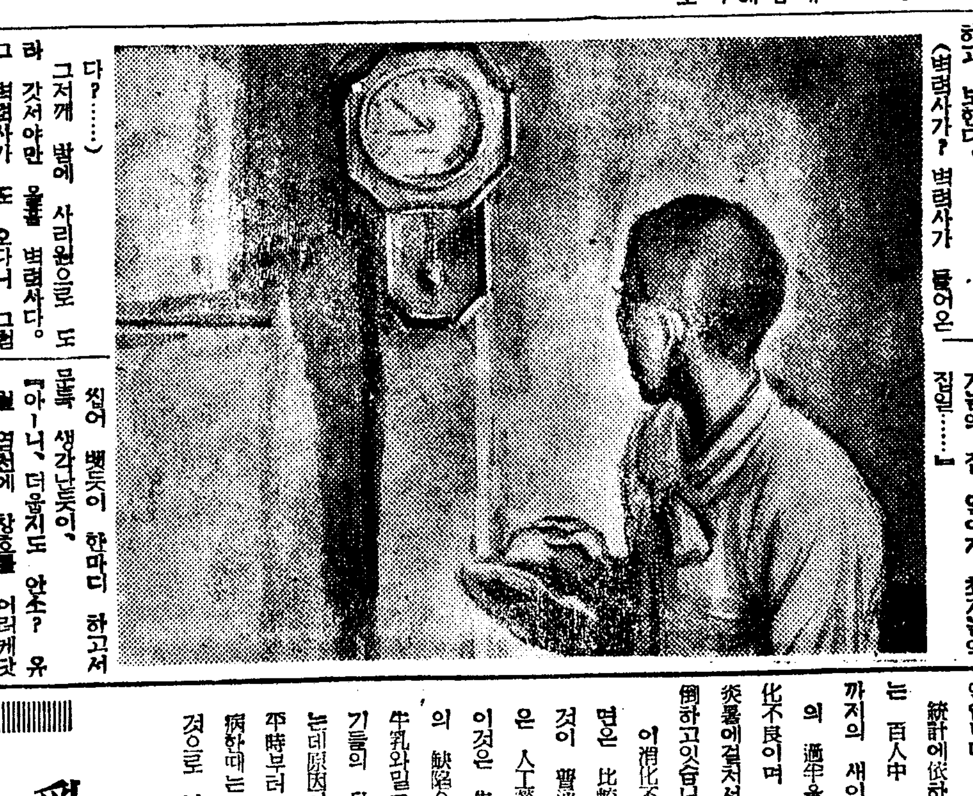
『최이회가 제 애비가 죽기전에 이른던 말이라고 인제부채를 정리하여 버린 다음에 서울로 올려갈 방침인데 날보고도 대원님께 말슴 좀잘해 달라고……』

『그거야 무어 우리가 진작부터 짐작하고 잇던 일이고…………』

『아-니 그런데 말이야 내가 조혼 말로 웅대를 하고잇는데 불숙 그 아들놈 건영이란 애가 방으로 뛰여들어와선 말이야, 건영이 란애가……』

『그어 건영이가?』

근동위는 눈을 둥그러케뜨고 병려사의 다음말을 기다린다。



家庭医学

일로부터炎暑에걸처서 애기들의受難期

危險한消化不良의豫防과手當

일로부터 炎暑에걸처서 乳幼兒의가여운 生命이第一危險을바들때입니다 요지음은 氣溫의激變이甚하고濕度가노파서 애기들의 弱한皮膚는 體溫의 調節에善變을밧고 內臟의 機能은 **衰弱**하므로 조곰한消化不良일저라도危險한中毒症狀을이르키는일이적지안습니다

統計에依하면 我國의 乳幼兒는 百人中 十三人이 一二歲까지의 새이에죽는대 이死亡數의 過半을占하고잇는것이 消化不良이며 또한 梅雨期로부터 炎暑에걸처서가 斷然他季節을壓倒하고잇습니다

이消化不良은 母乳兒인경우면은 比較的 輕하게 지나는것이 普通이지마는 危險한것은 人工榮養兒인 경우입니다 이것은 牛乳나밀크等 哺育料의 缺陷으로 오는것으로서 卽 牛乳와밀크는 母乳와如히 애기들의 身體에 適當치못하다는데原因이잇는故로 그障碍는 平時부터 徐徐히集積해서 發病한때는 相當히 病이進捗된경우로 보지안흐면안됩니다

直接原因은 젓의過飮暴食或은잘못해서 빠는것을 입에너케되는等일지라도 그보다바탕에서 나빠저잇스므로 發病하면急激히惡化하는것이普通입니다

以前은 人工榮養의 幼兒는梅雨期로부터 炎暑에걸처서 消化不良을이르키는것은 必至로 豫防할道理가업는것으로 생각해왓지마는 最近複合酵素劑『錠劑わかもと』가 發見되여서부터 이것이乳幼兒의 消化不良의 豫防에도 治療에도 大端히조흔것이 알려지고 人工榮養의 乳兒에게도이것을먹이어 危險한 消化不良을 豫防하게되엿습니다

이藥은 在來의 胃腸藥과는 조금性質이달러서 元來애기들의消化不良은 어른의 胃腸病과同樣으로 생각해서는안되므로 全身的의 榮養障碍로서 取扱할것이나 『錠劑わかもと』에는 **豊富**한 小兒榮養素로서 알려진비타민B、D、칼슘等을가장 히含有해잇는故로 乳中의不足한成分을 補充할뿐아니라 其他에도十數種의 活性酵素와그의綜合作用에依한細胞原形質賦活作用으로써幼兒의內臟機能을 顯著히強케합니다 그러므로 平常時이것을 먹이면 요지음의 受難期에도 消化不良의 念慮가업고 혹시걸렷드래도 速히治癒되야 危險을未然에防止합니다

療養實話

乳不足으로 胃腸이弱한아해

(朝鮮黃海道海州廣石町) 朴圭智

우리집의 昭和十年三月에난 男兒는나면서부터 대단히 弱한 身體를타고낫습니다 그러대 昨年에 다시妻가 妊娠을하게되야 아해는 젓을조곰도못먹게되엿습니다 그래서 父母로서참아볼수업서 衰弱하고여윈애가되엿습니다

젓代로 밥과죽을먹이면 胃腸을 害치서 一日에 三四回는 牛分量과가튼 大便을합니다 이러한 狀態로 五個月이나 끄럿스니 가엽다는것보다 속상해서볼수업을만치 弱해젓습니다

그동안 勿論모든方法으로써 健康增進해보려고努力을햇스나이러타할効果가업섯습니다. 最後에 錠劑의一策으로서『錠劑わかもと』를먹여보앗습니다 먹는동안 할공기밥을 다 먹게되고 軟便은커녕 硬便을보게되엿습니다 이런狀態로二個月以上繼續하니몸에살이찌고體重도다른애들보다무거웟습니다

그뿐아니라 昨秋부터 심심푸리로漢字를 가르켜보앗드니 정말거짓말가슴하다 하로에 三十字四十字는 問題업서 暗記해버리는조숙한頭腦의 所有者가되엿습니다 現在漢字만도 二千字가량이알고잇습니다 어것이 有名해저서 大阪朝日과大阪每日을爲始하야內鮮의各新聞에서는이애를神童이라고해서特筆大書해주엇습니다이애는나면서부터弱한이라고낫는지모르지만如何間不健康을불유해해준『錠劑わかもと』에感謝의禮를드립니다

顯著히進步된 乳兒脚氣의豫防法

乳兒脚氣는 生後二個月로부터 半年까지에 乳兒의게만흔 病으로서 嘔吐와 泄瀉로써 發作하고어느程度까지 母乳兒의 消化不良과가튼 經過가잇고 皮膚가 緊張을缺하고 蒼白하야 잘도잘안자고우는소리가쉬고 四肢의運動이 **不活潑해집니다**

病勢의 進行에따라 脈搏이늘고 呼吸도만허저서 浮腫이나게되면 元來가 抵抗力이弱한 乳兒이나만치 大端히危險합니다

이原因에對해서는 여러가지 說도잇지마는첫재 大人의 脚氣와 똑同비타민B의 缺乏이主因이되여서 母乳中에 이것이不足하는 結果乳兒가 그障碍를밧는것이라고하고잇습니다

그것은 母親에게는症狀으로서는것이나타나지안는 程度의것이라도 抵抗力이弱한 乳兒에게는 그症狀이 激烈히나타남으로 特히 發育期의 乳兒는비타민B를 要하는일도 特히 만흔까닭입니다

以前은이 病을人乳中毒症이라고해서 母乳를廢하고 健全한母乳를먹이든지 人工榮養을하지안으면안된다고햇는대 最近은 母

有効한豫防과治療

의길이發見되여서 乳兒脚氣로죽는乳兒의 數가大端히적어젓습니다

새로發見된 有効한 脚氣의治療及豫防劑로서는一般으로 胃腸藥으로알려진錠劑わかもと가그것입니다 이藥은 抗脚氣成分인비타민B를含有한은『生物中第一』이라고하는 純粹한 藥用에-뻬菌을主劑로 한것으로서 其他乳幼兒의 發育、體質強化에効잇는 만혼 成分을含有해잇스므로 授乳中의母親이먹으면 乳兒의 榮養을旺盛케하고 體質을強케하며 脚氣의 豫防이되고 또 脚氣에걸린乳兒에게먹이여도 效果가 잇기고 그健全한 發育을助成합니다

어藥은 我國乳幼兒의 死亡率을 遞減할目的으로한 わかもと本舖榮養と育兒の會에서 大人二十五日分一圓六十錢 (乳兒에는約二百日分) 八十三日分五圓이라는奉仕的廉價로一般에頒布하고잇습니다 希望者에東京市芝公園大門際わかもと本舖榮養と育兒の會 (振替東京一七〇〇番)에 藥價만送付하면 送費는會에서負擔해서 急送합니다

漆室遺稿解題

原歌의特色과觀辭

漆室公의時調(二)

靑山 李殷相

漆室公 李德一의 所作時調 二十八章을 紹介하기 前의 公의 略傳을 먼저 말하엿고 이제도 그 時調가 收錄되여 잇는 漆室遺稿란 그 冊子에 對하야 若干의 解題를 加하겟다。

漆室遺稿는 通例의 木板本으로 全七十七枚의 單卷으로되엿다。

內容은 三卷으로 分하야 一卷은 上宗伯書 諸子書 大同江祈祷 備大妃宗說 二十八章이고 다음은 二卷分에는

公의傳記를 詳細하야 實의漆室公事蹟 尤菴宋時烈의 漆室公書院祀 李喜朝의 李公家傳 柳林의 漆室祠宇의 後敍를 실엇다。

그리고 다음三卷分은 附錄인 序 月山詩 漆室祠宇 事實에 對한 記述이잇고 그리고 最後에 漆室遺稿의 序가 실리어잇다。

그런데 이 寫本이 編輯되기는 崇禎後壬子 卽 顯宗十三年의 일이니 西紀一六七二年이다。

公의時調 歌辭의수에 依하야 말하엿거니와 그의序에서 알수잇거니와 『歌詞不日 及作之所憂 … 不殘入 … 世之謹 … 亦是讀誦而已』라한것이 公의 時調를 愛讀한 歌謠이엇다。

그러므로 이 遺稿가 編纂되기를 公의 別世한지 五十年後에 된것이 만큼 반드시 原稿그대로 一字一劃도 틀림업스리라고는 期約하기 어려우나 그本意만큼은 傳하지 안햇스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여기 紀錄하려는 原歌의 紙字는 遺稿에 手寫된대로 쓰는것일다름이오 그로써 規則的古法으로 여긴것은 아님을 미리말하여둔다。

그리고 이 時調二十八章은 章마다에 說解를 附記한것이다。

이잇는바、說解는 漢歌로士 李絳序의 作이다。

李絳序은 韓山李氏로 字를沛然이라하고 號를 西州라한이니 自幼로 詞賦에 能通하던 사람이다。

原作者 漆室公보다는 조금뒤에나서 仁祖때에와서야 仕宦한사람이오 이도亦是 忠節의 傑物로서 … 그가 晩年에 全州西面洞에 이를곳으로 隱居한後에 … 를 讀하는 …

… 原歌의 特色이라는 點에서보다 두가지 理由로 貴重한 文獻이 되리라고 말하고 저한다。

하나는 이作者가 武將出身이라는것과 다른하나는 이作品이 다른이의 作에서는 求할수업는歷史的參考가되는點과 그보다는 特히 李朝後半의 黨爭을 슬퍼하고 노래한때문이다。

이러한點에서 公의 所作이 時調잇는 貴重한 文獻이될을 밝혀두는것이다。

「知性의自律性」의問題

―그의眞實한理解를위하야―

④ 安含光

實로 文化史的인 敎訓은 文化의 個性的世界의 展開 事件的 見解의 多樣性은 언제나 相互啓蒙的인 共助者이엇을지언정 決코 眞理探究의 障害者는 아니엇다는 點이다。

나는 아페서 知性의 自律性을 白眼視하는 몃개의 特徵的 理由를 點檢함에 依하야

(知) 性本來의 面貌 性格까지도 外郭的으로나마 말해왓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러한 時代的 雰圍氣가운데서 朝鮮에 잇서서의 知性은 어떠한 모양으로 棲息하고 잇는가 하는 밤맛의 話題가 나에게 要求되어지는 다음의 課題다。

첫째로 우리는 朝鮮의 知性이 直觀과 對立함에 依하야 直觀的인 性能을 除外한 死骸的인 물건으로 轉落되어버렷다는 事實아페 當到된다。이리하야 知性은 一般을 抽象化하는것으로서 自己行程의 始終을 삼는다。

다시말하면 知性이 一般을 主體化하는 本來의 使命을 저바리고 一般을 抽象化함에 依하야 退實된 朝鮮的 리베라리즘과 그行程을 同一히하고 잇다。

其實 리베라리즘은 一般을 抽象化하는 것으로서 唯一한 技術을 삼아왓다。

그는 近代市民社會의 端初 그 自體가

(長) 久한 歲月 一般의 抽象化를 時代的 指導精神으로 삼어온것이 아니가!

그리고 이 知性(悟性)과 直觀의 對立의 學說的 具體的 表現은 近代哲學史上에 잇서서 重要한 포지슌을 차지하고 잇는 칸트의 哲學으로부터 淵源한다는것도 決코 偶然之事는 아니다。

『純粹理性批判』에서 物自體說을 끌고나와 바-크레이의 主觀的觀念論 또는 휴-므의 不可知論을 批判한 그도 結局 『物自體』를 不可知의 彼岸的인것으로 宣言해버림에 依하야 現象과 物自體、質料(後天的)와 形式(先天的) 悟性과 直觀、理論理性과 實踐理性……等等의 二元論的인 諸對立을 招來햇다는것은 周知의 事實이다。

하나 이러한 知性과 直觀의 對立이 決코 오랑치못하다는것은 知性이 知性으로서의 自己存立을 主張케되는 論理的 前提의 世界를 想起하면 足하다。

其實 論理的前提의 世界는 無限定한것이아니라

(直) 觀的 世界와 結付되어지는 最初의 過程을 必要로한다는 事實을 否認할수는 업다。

그러기때문에 知性은 언제나 直觀的個性을 具體化함에 依하야 一般的인 事物을 主體性에로까지 끄러올리는 優秀한 方法의 世界를 가저야한다。

過去에잇서서의 合理主義란든가 主智主義도 그 文化的 實踐에잇서서 決코 朝鮮의 知性的 行狀이 呈露하고잇는거와가튼 位置에서 『直觀』을 待遇하지는 안햇다。

抽象化된 知性! 그는 知性의 活動舞臺인 批評境裡에서는 具體的으로 어떠한 모양으로 나타낫는가? 比較的 親熟히 하고잇는 文藝批評(其實 批評하면 文藝批評에 限하다시피된것이 朝鮮評壇의 現實이지만)에 對한 所感을 槪括的으로 이야기하자면 擧皆가 『理論判斷』에 不過하다는 點이다。

그러나 『價値判斷』을 떠난 純한 『理論判斷』의 批評이라는 것을 大體 우리는 어떠케 理解하여야할건가?!

(單) 善惡의 道德的 價値判斷、眞僞의 時代的 價値判斷、美醜의 藝術的 價値判斷等이 統一되지 안흔 單純한 『理論判斷』을 大體 우리들은 어떠케 待遇하여야할건가

이러한 『理論判斷』! 그는 結局 知性의 抽象化 批評의 抽象化를 意味한다。

그리고 이러한 批評의 抽象化는 두말할것도업시 批評의 個性的 世界와의 沒交涉을 意味한다。

實로 『價値』의 世界는 언제나 『個性』의 世界이기도하다는 것을 아러야한다。

個性업는 抽象的知性 抽象的批評이 對象의 價値를 追求 把握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할수 업는노릇이다。

이리하야 批評의 抽象에서 批評의 直觀的 個性에로! 이것이 知性아페 노혀진 今日的 課題의 하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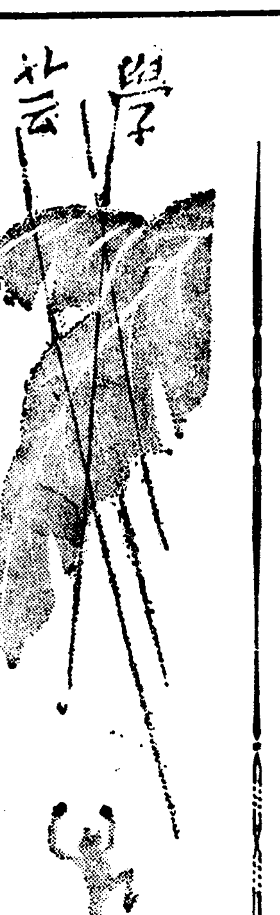
둘째로는 어떤 洞窟的 世界에로의 蟄居가 知性의

(本) 領이며 知性의 知性다운 點이라는 듯한 嚴然한 傾向과 맛서게 된다。

이러한 傾向의 올코그름에 對하야는 아페서 知性과 自然知性과 實踐의 關係를 點檢한 部分에서 여러번 이야기된 바이라고 생각한다。

하나 朝鮮的 樣相에서 좀더 細密히 생각해볼때에 前記한 바와 가튼 傾向가운데는 諸種의 바리에-슌의 介在로서 顯現되어잇다는 것을 알게된다。

卽 知性이란것을 高尙한 趣味와 敎養에서 또는 無個性的 知識의 堆積에서 또는 個人主義思想의 原理等에서 解釋하려는 觀意의 混線을 본다。



博川行 (一) 元帥峯의 傳說

崔益翰

博川郡의 第一名勝인 元帥峰은 舊嘉山郡의 東界山이다。嘉山邑誌에 『郡東二十里、有元帥峰、山高谷邃、左挾大寧江』이라하얏스며 現博川邑西七里許에 位置하야 博川面下南洞과 隔江相對하고잇다。

嘉山靑龍山脈은 東으로 數里奔馳하야 大寧江上에와서 우뚝섯스니 海拔一百六十米인 單體山으로서 그리高大치는아니하나 東南으로 大江과平野를 臨한만큼 現邑峽波亭附近에서 江光野色의 配景을通하야 멀리바라보면 古色蒼然한 甲胄를 더러쓴 將帥가 威容을 까다듬고 엄거주춤하게 안저잇는것에 彷彿하다。多數한 探勝客의 撮影對象이되고 잇다。

峰의 名稱由來는 어떠한가。一部郡民의 傳說에는 洪景來가 峰의北便一里許 多福洞에 潛伏謀事할때에 자조此峰에 올르든同時에 峰名을 元帥라고 命名하얏다하고 一說에는 洪景來가 平西大元帥라 自稱한故로 洪의 登臨處인 此峰을 元帥라고 時人이 名稱한것이라한다。

그러나 故老의 말에 依하면 洪의 以前에 벌서 元帥의 名稱이 잇섯슬뿐아니라 古傳說에 高麗時姜邯贊이 契丹防戰次로 本地方巡行時에 此峰에 登臨하얏슴으로 元帥峰이라 稱號가 잇게되얏다한다。

何如間 洪景來의 命名、或은 그로因한 名稱이란것은 附會의 野說에 不過하다 嘉山의 古長城 俗稱萬里長城이 現龍浦面小新院으로부터 嘉山嶺을지나 元帥峰의 北便山麓에와서 그치고 江을건너 現博川面下南洞江岸에 다시 長城이 나타나는데 이城線은 直接元帥峰과 正面相對하엿다。그러면 此峰은 高麗時代의 城塞江野의 要點인즉 元帥峰의 名稱이 이時代에 緣起한것을 想定하기 어렵지안타。現嘉山公立尋常小學校所編 『鄕土史料』中에 距今約一千二百年前에 元帥峰의 後方에 食使의 領을두엇다가 百餘年後光宗朝에 廢撤하얏다하나 年代와 官名이 相應치안흠은 더러 與寬邑誌에 모다 나타나지안햇고 또遺蹟的 地理를 略査해보아도 그럴듯한 場所가 發見되지안흐니 이것은 信憑키어려운말이다。

據在三(字仲異)所著 『松南雜識』을보면 元帥山이란 題下에 『麗忠烈王時、哈丹侵軼。王請兵于元。世祖遣平章薛闍干來。助破丹兵於此。以駐軍之地故、謂元帥山』이라하얏스니 所在地의 記入이 업슴으로 어느곳의 것인지는 알수업스나 이것이 或은 本元帥峰을 指稱한것이 아니엇는가한다。

山含劍氣衝天立
水擊兵聲動地來。

이單行一聯은 洪景來의 寄湧藥山東臺詩句로서 人口에 膾炙한다 詩中形勝으로보더라도 元帥峰보담은 藥山東臺가 더近似하나 嘉山邑誌에는 元帥峰의 題詠이라하얏기에 紙末에 記入한다。

新刊紹介

▲文化와衛生 金鎔煥著 總販賣所 京城府堅志町三二 漢城圖書株式會社 振替京城七六六〇番 定價五十錢

▲歌の唄ひ方 村山博著 販賣所 京城府竹添町一丁目四四 十字社書店 振替京城二九七九番 定價五十錢

▲朝鮮實業俱樂部 七月號 發行所 京城府鍾路二丁目一〇〇朝鮮實業俱樂部社 振替京城八五四〇番 定價五十錢 送料四錢

▲가톨릭少年 七月號 發行所 間島龍井村 가톨릭少年社 振替京城二三五〇二六番 定價十錢 送料一錢

▲基督申報 第一六七號(週刊) 發行所 京城府西大門町二丁目八九〇番 定價一部六錢

▲四海公論 七月號 發行所 京城府三丁目四七의一 大同出版社 振替京城一〇二九 定價二十錢 送料一錢

水墨漫筆 (十) 朴淵瀑詩歌

湖岩

松都의 絕勝이오 極域의 名瀑인 朴淵은 比較的交通이 便利한 近畿地方에잇는 만큼 거의四時에 遊人이 끈치지 안는다。

特히 綠陰이 욱어진 夏節에는 追凉客들과 丹楓이 드는 秋節에는 探勝客들이 더욱더 만흐며 거기가는이는 누구나 그名瀑의 絕勝을 讚賞하야 해지는줄도 모를만큼 이저버리게 된다。

畫家는 畫로 그것을 그리며 詩人은 詩로 그것을 을프며 歌客은 歌로 그것을 노래하니 古今을 通하야 朴淵瀑에對한 詩畫와 詩歌가 적지안흘것이다。

그러나 朴淵瀑圖로서 名篇잇다함을 듣지못햇스니 李朝의 鄭道傳、金弘道가 그것을 그렷건만 웬까닭인지 一大傑作을 내지못하고말앗다。詩로 말하면 東國詩宗인 李奎報로부터 最近名家인 金滄江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을프지 안흔이가 업는 아니나 그全首를 다 적는다。

金滄江의 朴淵瀑布詩로 『日照群峰秀。雲蒸一洞深。』이라하과 『白練飛千尺。靑銅徹…』

어것은 朴淵을 아주 美하게 그리면서도 詩의 詩다운 格調와 藝術的 氣韻이 잇는데 第一聯인 『岩飛山拔地。溪立瀑垂天。』은 全首中에도 가장 眼目이라 朴淵을 그리고 古今詩篇 中에 코 이만한 名句가 드물다

金滄江은 梁齡의 五言律이 가장有名하니 좀煩長의 嫌이 업는배 아니나 그全首를다 적는다。

『俯棧盤盤下。回看所歷懸。岩飛山拔地。溪立瀑垂天。…』

朴淵瀑布詩에 잇서서는 申光漢의 이名句를 愛誦하야 일즉그것을 본바뜬 朴淵詩五言律을 지엿는데 그一聯에 『群山都却立。一水忽飛來。』이라고 하엿다。金滄江의 이聯句가 미상불 精巧하지만 梁齡의 『岩飛山拔地……』聯句에 比하면 거이雲泥의 差가 잇다하겟다。

朴淵瀑布詩는 흔히夏節이 아니면 秋節이며 春節이나 더욱 冬節에 이르러는 을픈이가 絕無僅有라할程度이다。李朝鶴의 朴淵瀑歌 二十七句의 長篇이 잇슬뿐이니 林悌는 有名한 海東樂府의 作者이만큼 일즉이 雪中天磨를 차자가서 朴淵의 冰瀑을 그린것으로 그詩歌는 짤막고 다만 冰瀑歌의 由來만해도 興致잇는 詩人의 行動이라하겟다。

穀象 (六)

女流短篇

崔貞熙作 崔根培畫

아무리 끈하드다치드래도 오래간만에 만난 안해의 이얘길 안드려주고 잠이 들어버린 남편의일이 남이는 무척 섭섭하고 슬그머니 부화도 낫다。한참이나 닥쳐던 개혁상을 하고 멍하니 남편의 자는 얼굴을 더레다보며 서글픈 생각을 하지안흘수 업섯다。그러다가 잠이든인표가 입에 허연 거품을 물며 이상한소리를 내여 코를 자자 남이는 겁나서 자는남편을 꼿흔들엇다。그래도 남편은 깨지안코 거품을 물며 『흐응』 씨색 흥흥 피석유흡에 석유를 켜올리는 소리를 하고잇섯다。

『혹시 무슨일이나 생기면』하는 마음에서 남이는 남편을 흔들어도보고 불러도보고 가슴에 손을 언저도 보고햇다。

그러다가 남편의가슴이 펄떡펄떡잘뛰며 별다른 증세가 업는것을 보자 남이는 안심하고 거품을 무는거며 코고는소리가 이상한것은 그동안 몸이 몹시쇠약한탓이라 짐작하고 어떠케하면 남편을 전과가티 튼튼한 사람을 맨들어낼까 하는것을 밤 어 길도록 생각햇다。

한밤을 꼬박 새웟건만 그는 이튼날아츰이 고단하지안헛다。일어나던길로 장에가서 소고기 호박 감자 파 북어등을 사다 밥을 짓고 반찬을 맨들고— 남편이 일어나면 시장끼 돌기전에 대접하려고 정말 온갓 정성을 다해서 조반을 지어노코 남편이 일어나기만 기다렷다。

그러나 인표는 문수가 일어나서 아버지가 오섯다고 조하서 안팟글 드나들며 서성대는것도 그거테가서 아버지의얼굴을 디려다보며 학교가 느저지는것을 엇고주춤거리는것도 모르고 그 아침이 지나서 문수가학교를 파하고 도라올때까지도 어제저녁 파 꽉가티 거품을 겍겍 흘리며 석유켜올리는 소리로 잠만 자고잇섯다。그러는 사이에 동네여편네들의 인사를 남이는 몃 고패를 치르엇다。

『마적군에게 붓잡혀가서 글세 목숨을 요행 건젓다누마』

그는 이런말로 말머리를 시작해서 그여편네들에게 남편한테서 드른 이야기전부를——보다도 거기다가 더 보태여 그여편네들이 자기남편이 그냥혼한푼 못벌어가지고 온것에대해서 흉을 볼다든지 또는 욕하는일이 업도록 엄게를 딱 처노핫다。이것은 남편을 위하는마음에서보다 남이가 자기자신이 그여편네들대하기에 덜부끄럽자고한일이엿다。그러함에도 불고하고 그들중 어떤여편네는

『문수네는 조켓구나』하고 말을 붓처보는것이엿다 『와!』하고 남이가 되처물을나치면

『돈사가려에안겟스니 안조켓소』하고

또 어떤여편네는

『얼매나 벌어왓대여 한천냥되지란』하고

또어떤 여편네는

『아이고 하느님 맙시사 문수네도 한평생 고생이라 고생도 팔자라이까 어쩔꼬 저쩔꼬 기다린것이 그럭구만』

이러케 슬그머니 남이를 동정하는체하며 뒷말을 기다렷다 이런여편네젠 남이가 가만 엇지안헛다。

『안직두 잘몰라요 안팟이밧구마』하고 말끄를 무질러노핫다

그러면 또 다른여편네는

『요햇만난 서방님이라 그런말도 못물어밧는기요』하고 남이의깨를 툭치며 수선을 피기도햇다。남이는 어려는 그들에서 다시 무슨말이 떠러질가 업숫시펏지만 그들은 그런눈 남이의 눈치를 채이면서도 좀체말을 멈추려고 하지안헛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햇다。인표는 그러케 동네 여편네들이 수선 피우는데도 깨지안헛다。안바쥐인 여편네는 한밤을 꼬박 세우고 낫잠을 자는것이라고 인표가 늣잠자는것을 남이더러 놀려댓다。남이는 남편이 그러커뭇 한것이 마음에 섭섭햇지만 잠을 잘자면 병이 쉬이낫겟지하고 다행하여겨서 남편을 깨우지안코—깨우기커녕 문수가 아파에 들어서 생전 처음제동무들을 데리고왓것도 시끄러우니 밧게 나가놀라고 내쏫찻스며 남이자신도 방에이소리가 살살마치게 나가놀리고 가도록 몸래할것을 연려해서 하나지다 루에서 남편이 이러나기만 기다렷다。

淋病이면 루-베리

各藥店에잇습

루-베리의特徵

一、尿道粘膜으로 吸收가速하고 急速히 快感을 느낄수잇슴

一、尿道를 … 殺菌 … 副作用 업슴

一、藥効가 確實하야 …

危險한療法은避하라

價藥 五日分 一圓五十錢 七日分 二圓 十三日分 三圓七十錢 (送料不要)

세-친 음부 습진 水고에 저절로 낫는 … 竹村製劑所 本舖 定價 三十錢 五十錢 一圓

各藥店에잇습

大阪市南久太郞町 竹村製劑所 振替大阪三六〇番

初老期의諸障害에

純國産 男性호르몬製劑

エナルモン

純國産純正 男性호르몬劑

エナルモン은 國際聯盟中央試驗所에서、諸種男性호르몬劑中 가장 强力함을 確認한 純國産純正 男性호르몬劑로서……

血色素數、赤血球를 增加하고 新陳代謝를 旺盛케하며、一般症狀을 佳良케하야써、男性의精神的·肉體的機能을 保護增進케함。

男性호르몬劑의力價判定

現今 男性호르몬劑의 力價判定은 鷄冠單位法에 依하는것이나 同一鷄冠單位라고 반드시副性器官에 對한作用을 同一케하지안함

또臨床的效果도 亦是差異가잇슴은이미承認되는바이다

エナルモン은 라게-루氏法鷄冠單位로서 力價를 檢定할뿐아니라 精囊血攝護腺作用을 檢定하고 臨床效果의 確實을期함

(用量) 錠劑는 一回一——二錠을 一日三回服用。注射液은每日又는 隔日一——二管을筋肉內에注射함

【價格】 錠劑(一錠三鷄冠單位) 三〇錠(二圓五〇) 一〇〇錠(六圓)、三〇錠(八圓五〇) 注射液(一管一〇·五鷄冠單位) 五管 一〇管 三〇管

初老期 高齡期 疲勞倦怠感 眼精疲勞 記憶力減退 不眠、頭痛 肩臂等

靑年期 壯年期 男性的特徵 不全、憂鬱症、執務嫌忌等에

病後의 恢復期 心身衰弱의 恢復促進에

發賣元 大阪市道修町 株式會社武田長兵衛商店

關東代理店 東京市本町 株式會社小西新兵衛商店

製造元 川崎市大宮町 株式會社帝國社臟器藥研究所

武田發賣品

七月十三日부터 納涼大公開! 二十世紀폭스社超特作日本版 巨匠존포-드監督氏大作品! 膝にバンヂョー 바-바라스탄우익그·죠-엘마크라氏主演 東寶映畫社特別大提供全發聲 製作松崎啓次氏 南京

解說徳川夢聲 全勝키네마社超特作全發聲 山本嘉次郞氏監督作品! 劍風花嫁錄 大河內傳次郞氏 主演 花柳小菊子水木令子助演 支那事變戰捷!今上映 次週十七日부터 放蕩者 靑春角力日記、密林の網 香で期待! 光化三九五 優美館

日活 黃金座 七月十二日より 七月十九日マデ パ社朝日ニュス 11·00 2·40 6·40 麗人遁走曲 11·20 3·00 7·00 京日ニュース 12·35 4·15 8·10 人生劇場殘俠篇 12·45 4·25 8·20 一般均 30錢 入場者午前中

國劇藝術座公演 七月十三日밤부터 ▲變態名劇連上演! 李瑞求作 『眞珠塔』四幕五場 돈、사랑、名譽——이三角的難題에 呻吟하는 現代靑年男女의 斷末魔的苦悶을그린作者快心의大作으로 사랑에살고사랑에죽으려는純眞無垢한處女의불타는復讐에우리는맛당히 친원하노니世相의嚴肅한鼓舞를밧게될것이다。

울자! 웃자! 그리고 拍手하자! 南宮春作 『內外衝突三重奏』一幕 ▲特別豫告▶ 南宮春作 『두어머니』三幕五場 每夜七時二十分開幕! 東洋劇場

本報蠶島支局 本局三八八六

松竹キネマ 明治座 7月11日ヨリ17日マデ上映番組時間表 朝日·讀賣·パテー·ニュース 2·24―2·51 6·45―7·12 松竹京都 緋牡丹傳奇(前篇) 10·45―11·37 2·56―3·48 7·15―8·07 緋牡丹傳奇(後篇) 11·40―12·49 3·51―5·00 8·10―9·19 MGM 結婚十字路 12·54― 2·19 5·05―6·30 9·24 10·49 料金50錢軍人小人30錢 (割引開演時間迄)

自七月十三日ヨリ至七月十六日マデ四日間 階下席十錢均一公開 東日·讀賣ニュース 丹下左膳 オールトーキー 後篇全通シ 月形龍之助·澤村國太郞主演 ダイナマイト 嵐寛壽郞作品 ロコムビア特作日本版 シヤジクホルト·グレスフラドリ主演 毎日晝夜三回 第一回 一時 第二回 三時 第三回 七時 中央館 永樂町 本三〇一四 888

產業

十二年棉生產價額 三千二百餘萬圓

═陸地棉十二割四分二厘增 在來棉一割六分九厘減收═

比前年七割四分九厘增

昭和十二年의 棉生產價額을 調査한바에 依하면 收穫高는 陸地棉二億四十二萬二百九十二斤 在來棉三千九百八十六萬八千百七十二斤으로 合計二億四千二十八萬八千四百六十四斤에 達한다 그價額은 陸地棉 二千六百九十五萬六千九百六十三圓 在來棉 五百十六萬一千七百七十圓으로 合計三千二百十一萬八千七百三十三圓이다 이것을 前年에 比하면 收穫高는 陸地棉 一億一千百二萬七千八百十八斤으로 十二割四分二厘의增 在來棉 八百十一萬四千五百六十六斤으로 一割六分九厘의 減收이어서 合計 一億二百九十一萬三千二百五十二斤으로 七割四分九厘의 增收이다 價額에 있서서는 陸地棉一千百九十一萬四千四百四十四圓으로 七割九分二厘의增加이며 在來棉二百二十九萬一千七百八十四圓으로 三割七厘의 減收이어서 合計九百六十二萬二千六百六十圓으로 四割二分八厘의 增加이다 이것을 道別과 年次別로 갈라보면 다음과 갓다

種別 道別	陸地棉 收穫高(斤)	陸地棉 單價(厘)	陸地棉 價額(圓)	在來棉 收穫高(斤)	在來棉 單價(厘)	在來棉 價額(圓)	計 收穫高(斤)	計 價額(圓)
京畿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忠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	―	―	[illegible]	[illegible]
忠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	―	―	[illegible]	[illegible]
全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	―	―	[illegible]	[illegible]
全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	―	―	[illegible]	[illegible]
慶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	―	―	[illegible]	[illegible]
慶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	―	―	[illegible]	[illegible]
黃海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平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平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江原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咸南	―	―	―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咸北	―	―	―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總計	二〇〇、四二〇、二九二	一三五	二六、九五六、九六三	三九、八六八、一七二	一二九	五、一六一、七七〇	二四〇、二八八、四六四	三二、一一八、七三三
年次及道別								
昭和八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九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十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十一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十二年	二〇〇、四二〇、二九二	一三五	二六、九五六、九六三	三九、八六八、一七二	一二九	五、一六一、七七〇	二四〇、二八八、四六四	三二、一一八、七三三
對前年比較增減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上步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朝鮮紙原料"楮"

荒蕪地空地를利用增殖

【平南支社發】 『펄프』의不足을 느끼어 종이飢饉이 甚한이때에 平南山間部郡 副業인朝鮮紙製造業은 그重要性을더하고잇는데 平南道內에서 生產하는 朝鮮紙는 昨年末調査로 一萬二千萬枚로 그價額이 十一萬二千餘圓에 達하고잇고 山間部郡山野에는 原料인 楮가 茂盛하므로 이것을大量增殖하야 滿洲方面에서도 [illegible]注文을밧고잇는 製紙事業을 強化하고저今年부터 昭和二十一年까지 九個年繼續事業으로 一年間에平均十萬株식으로道樹苗育場에서養成 朝鮮紙의 產地인 陽德、孟山、德川 成川等各郡內에 適當한山野에 심어서 增產을하기로되엿는데 이計畫은 耕地의 畦畔、荒蕪地空地등을 綠化하는 方策도되여 朝鮮紙增殖과 아울너 一石兩鳥의政策으로 期待가크다고한다

平北道의 漁業補助

【新義州】 總督府에서는 漁業經[illegible] 冷凍施設을 爲하야 漁業用製氷、冷凍、冷藏의 新設、增設、又는 購入에 對한補助는 昭和二十一年度까지 繼續하기로 되엿는바 平安北道內各漁業組合에서 이補助를 必要로하는 個所는 各年度別로 다음과 가티 計畫을樹立하얏다한다

▲簡易冷藏庫

十五年 鐵山郡扶西面[illegible]串浦

十六年 定州郡南西面馬山浦

十七年 博川郡[illegible]面[illegible]美洞

十七年 龍川郡府羅面 元城洞

十八年 同 (製氷)

▲貯氷庫

十五年 鐵山郡圓島

十五年 宣川郡身彌島

十六年 龍川郡新島面南州洞

十六年 定州郡葛山面艾島

十七年 鐵山郡大和島

十七年 定州郡大山面大興洞

十八年 宣川郡台山面[illegible]洞

十八年 定州郡觀舟面觀[illegible]洞

十八年 同郡臨海面天台洞

槲木에서 고무原料採集

高周波에서企業化

高周波系의 應用科學研究所에서는 일즉이 고무自給에 關한 研究를 進行하고잇섯는데 槲木의樹脂、枝葉에서 獨特한 製法에依하야 優良한고무代用品의生產에 成功하야 그製品과 天然고무와의 比較試驗에 잇서서도 相當히 新製品의 優秀한것이確認되어 이르렀다 이實績에 힘[illegible] 高周波에서는 高橋專務가 中心이되여 內地에서는 農林省과 提携하는一方 總督府林業當局과도 連絡을取하야 企業化에進出하게되엿다 또相當한時日을要하리라고 보이지만 槲木의增殖에依하야 고무自給의 可能性도考慮되느니만치 이創見은注目을끌고잇다한다

完州薄荷獎勵

【全北支社發】 完州郡農會에서는 道衛生課의 指示에依하야 農家更生副業으로 더욱이軍需工業用으로 薄荷栽培를 年年增殖하여왓는바 成績이良好하며 道內各地가 適當하야 本年度부터는 植付面積을擴張하여 指導獎勵할方針을 目下計畫中이라고한다

咸南淡水魚六萬尾 五個養魚場에配付

【咸南支社發】 咸南道水產會에서는 淡水魚의增殖을爲하야 鎭海養魚場으로부터 六萬尾의 鯉魚의稚魚를要求하야서 五日에道內主要養魚場인 本宮 咸興農業學校等五處에 配付하얏다

濠州產種緬羊 鎭南浦到着

總督府農林局서 全朝鮮各道農會에 配給할 十三年度 濠洲產種緬羊의 第一回는 十一日 『[illegible]보운丸』으로 鎭南浦에 『[illegible]랜드』羊千百七十九頭 第二回는 十七日 盛岡丸으로 元山에 濠洲羊八百九十七頭가 到着하므로 鐵道局에서는 兩地로부터 各配給地間에 專用貨車로서 輸送하게되엿다 또 第三回 濠洲羊 千三百四十五頭는 二十五日 旭光丸으로 雄基에 到着할터이라한다

報恩에喜雨

【報恩】 報恩地方에는 오래동안 旱魃이繼續되야 移秧도대반이나 [illegible]

[illegible]이아니라 各種農作物에 [illegible] 被害가不小하고 四方에서 降水를 要望하든次 지난七日午後부터 [illegible]가 나리기始作되여 八日午後까지 나리고 九日朝에는 [illegible]天이되어 인제는 山間僻地까지라도 [illegible]이 [illegible]하게되어 이대로 [illegible]가 進行된다면 今年農作物은 豐年을 [illegible]한다고한다

戰爭과物資 ⑦

需要를左右하는 人織工業의消長

─總生產量의七割─

曹達

曹達을 大別하면 炭酸曹達(曹達灰)、重曹、苛性曹達의 三者로된다。이三者는 曹達工業의 花形으로 가장 重要한것이나 이것이 曹達工業의 全部는 아니다。이三者를 相互關聯시키고 轉換하야 各種의 物品을 作出하는데 曹達工業의 特徵이잇다 따라서 그需要도 퍽 廣範圍하야 需要面으로보아도 人絹、『스·파』、硝子、石油、石炭、『펄프』、紙、油脂、石鹼、染料、아루미의精鍊、再生고무等으로 化學工業의 全面에所用되고잇다。一般으로 鹽과 『아루카리』가 化學工業의 母라고하는 理由도 이에잇는것이다。

今日의 我國曹達工業에잇서서 가장 큰問題는 原料鹽配定과需給의調整及 配給의合理化 公定價格制이다。曹達工業 特히 苛性曹達은 前述한바와가티 基本的工業藥品이므로 戰時價格政策을 化學工業의 分野에까지 미치게할려면 當然히 他의 諸商品에 先行하여 戰時對策이 講究되여야한다──하는 理由로 商工省에서는 業者에 對하야 工業組合法에依한 工業組合의 設立을 强要하고 이組合에 依하야 價格統制의 實効를 내일려는것으로 이를爲하야 日本아모니야 曹達工業組合會와 日本電解曹達工業組合이 結成되엿다

大體로 日本의曹達工業은 創設以來最近까지 比較的自由로운 事業으로서 發展하여온바 昨年初에 原鹽의入手가 困難하되여 其後政府의 工業鹽의 近主遠從主義에따라當然히 曹達工業도 이政策의基礎우에 樹立하여야되게되엿다。때마침政府에서는 苛性曹達의最大의 消費者인 人絹『스·파』에 最高價格制를 適用하엿스므로 曹達工業도 必然之勢로 物資需給調整中에 包含되여 戰時經濟下의 重要商品으로서 그의發動對象이된結果 工業組合의 設立要 公定價格制의適用을보아 戰爭商品으로서의 適性을 露出한것이다。

本年度의 工業鹽의 輸移入이 國家의손에依하야 計畫된以上苛性曹達의生產도 亦是一定한 需給想定下에 計畫性을띄게된것은 當然한推移라하겟다。

本年度의 曹達의生產은 本年中의 原鹽의輸移入許可量과 其使用可能量을알면 따라서明白히 될것이다。

爲先昨年來의『스톡』五十二萬五千噸、輸移入許可量百四十五萬噸 合計百九十七萬五千噸의供給에對하야 使用可能量은 次年度持越二個月分 二十八萬二千噸을 差引한 百六十九萬三千噸으로하고 이것을 암모니야電解其他에 如左히配定하엿다 (單位千噸)

	本年度使用可能量	前年度實績	比較增
암모니야法	一、三三一	一、〇四一	二九〇
電解法	三五五	三〇一	五四
染料其他	七	一一	△四
合計	一、六九三	一、三五三	三四〇

이에依하야 암모니야法의 生產高를보면 使用增加二十九萬八千噸은 灰로換算하야 十六萬噸인바 그五割 八萬噸이 苛性化된다하면 苛性曹達의 增加는 五萬五千噸이된다 이것을 昨年度의 암모니야 苛性의 實生產額 二十二萬噸에加算하면 二十七萬五千噸이 總供給量이다

●電解法에있서서는 原鹽의增加分 二萬四千噸이 全部苛性에充當된다하면 一萬二千噸의 增加로 昨年度의 實績이 約十二萬三千噸이엿스니 本年度生產額의 限度는 十三萬六千噸이다

이것에 암모니야苛性二十七萬五千噸을合計한 四十一萬一千噸이 原鹽使用統制配定에서 歸納되는 想定總生產量이다。 苛性의想定數字를前年度及 前前年度에比較하면 如左하다(單位千噸)

	生產	輸入	輸出	純國內消費
十三年度	四一一	―	―	四一一
十二年度	三四一	一七	六	三五二
十一年度	三〇三	三	一四	二九二

本年에들어와서의 輸出入數量은 輸入이約五、六百噸에지나지못하고 輸出은말할것도업스니 至今에는 問題되지안는다。 一方需要에있서서는 人絹『스·파』를包含한 人造纖維工業의 消長에依하야 左右되는데 大體人絹『스·파』兩者를合한 月額生產量을二萬噸으로하면 年換算二十四萬噸쯤될터이니 가령 兩者가모두一噸에對하야 一噸의苛性을使用한다하면 二十四萬噸으로 總生產量四十一、二萬噸의 約六割五分乃至七割이 이方面에充當되고 其殘餘가 人造纖維以外에 充當될것이다。

大體로보아 本年度의苛性需給計量은 別異常업슬것으로 보인다

다음에公定價格問題에對하야 一言하면 암모니아法苛性의公定價格은 工場渡로 二十一圓五十錢 電解法은이보다 五十錢引下시키기로 商工省의方針이 決定되엿다하는데 이價格이如何한基準으로 決定되엿는지는 分明치안허 一般으로 不平을사고 잇다한다 公定價格은 좀더明朗化시킬 必要가잇는것이다

放縱의習性못버려 脫出逃走가一手

記錄保持는凡十二回

別天地 人生道場 文川感化院을차저서 ⑤

이상에서 말한바와가티 이곳에는 각종시설이 완비되엿슴으로 아니라 그의식준을주고 사제간화기애애하게 지나는듯하건만 어쩐지 매년 이이상소년을 탈출하얏다가는 붓자펴오고 붓자펴왓다가는 또 다라나가는자가잇다 그들은 목적이나 계획이서잇는것도아니고 다만 타산(打算)을 추월한 어떤 충동적행위에서 그순간 탈출을하게되는것이며 도주사건이 번번하기는 가엾것이라하며 탈출도주의 주인공은 거이가 치둔형(痴鈍型)보다 흥분형(興奮型)에 속한다고한다 그도주방향은 대부분이 유년론서 원산방면을거치나 화교배를 저어수로로 함흥방면으로 도망한예도잇다

이곳에서는 감옥과가티 담을노피축조한것도아니고 간수가잇서서 감시도하지안는다 그러므로 다라날의사만잇스면 언제나 도망할수잇게되엿다 그러대 탈주가잇슬때에는 각지 경찰서에 수배를 하는한방 전직원이 총동원되여 도망자의 뒤를 추격하는데 대개는 문천 문평 원산등지에서 붓들려온다。 얼마전에도 안(安)어라는 선산세된 소년이 두동무와 더부러 가축사에서 잠복하고잇는것을 문평방면에가서 직원이 발견하고 붓들어왓다 열두번을 탈주한 전남포출신의 갑이라는 소년의 반생을 여기에소개하야 탈주자의 성격의일면을 엿보기로한다。

○──○

갑은어렷을때에 주머니속에 돈한푼업시 조선십삼도를 두루도라 구주를거처 대만에까지 가 본주북해도와 화태까지 수륙수삼만리의절도행각을 맛마치고 다시조선에도라와 부산에서 절도를하다가 열다섯되든 해인소화오년오월에 이화원에 드러오게되엿다 그는어떠한사람이 가진것이라도 자기가 훔치려면 기어코 성공하고야 말엇다는 절도천재엿다 그러던 그가 어려운 감화원에 가처잇기는 그의심사가 허락치안엇스리라 그는입원후 얼마안되여 전후십이회의 탈주기록을 짓고 아주 다라나고 말엇다。 어느날 그는탈주를 실패하고 선생아페서 다음과가튼 말을하엿다한다 〃선생님 나의머리에는 조금도 드러가지안흡니다 내가본선생은 위대하고 … 존재가 아님이엿습니다 가르치고 지도하나 너머도 세상일을 모르는한개의 천치가튼 무능한 존재로밧게 보이지 안습니다〃 라고 괴감화자가 볼 선생판을 대담하게 솔직하게 고백하엿다고한다 그는열두번만에 어곳을탈주하야 원산、장전、부산을 거처 통영에 건너가서 절도에 실수되여 통영에서 … 년간의 징역을마추고 하문에가서 또다시 절도를하야 그곳형무소의 신세를지고 작년시월에 … 조선에 건너와서 대구(大邱)로처에서 … 지갑을 홈처내여가지고 경주(慶州)대구등지에서 절도행위를하다가 혼자서 전주에가다 이곳에서경성으로 남편을처저간다는 젊은모녀(母女)와함께 기차를 타고 경성에서하차하야 며칠을 가튼여관에서 동숙한후 지난오월중순 단독 래원하야 은사가잇고 낫익은 감화원에가 … 다 그는 금년이십삼세라한다

○──○

다음으로 감화원생의 성욕문제를 들어보기로한다 성욕은동물의 본능이라하 누구나 사춘기에 이르면 발동하는것이라하나 변태성욕 다른이가지 이상소년가운데에 다유달한것을 들수잇다고한다

지금으로부터 오년전에 소화구년에 어곳에는 개원이래 처음으로 엄청난지인 여자원생이 입원하게되엿다 그는 평양서온 본전(本田)이라는 십오세된 소녀로써 입원당시에는 그다지되여보이지안엇다 여자가 온다는 … 이 화교에는 이십삼세부터 … 청소년이만히 … 데 그들은 어여자를 동정하고 … 추파를던저 … 몸을불가리지안는 편이엿스니 … 제각금 연애싸움의 … 평화하던 교내가 … 어떠눈동에 그여자의사랑을 독차지한 사나이가잇섯스니 그는 십오세밧게안되는 어린소년이엿다 어사실을안 … 학교당국에서는 대경실색하야 의사에게 진찰하엿든바 … 임신이다 그리하야 어화교에서는 … 그여자의 싱부모를차저 돌려보냇다한다=계속(사진은 … 動物標本)

元山特派員 卞龍甲

大寧江水汎濫으로 年復年被害莫大

洪水期를當面威脅加重으로 住民代表要路에陳情

【博川】 평북박천군박천면과 동남(東南)면에 궁한 박천수리조합몽리구역(蒙利區域)약일천정보는매년홍수의 위협을받더 거의전부라고할 구백여정보가 손해를입고 이감수(減收)량이 약이만오천석에 달한다 이 일천정보에서 근농을하면 년오만여석을 수확할것이데 연년히 입는수해에 온갓정성을다하야 피땀을흘리고 지여노흔 농작물이탁류(濁流)에 휩쓸려 버리고마니 이에 위협을 밧는농민은 자연농사에 힘쓸용기조차나지안코 비료도마음대로쓸수도업다 이감수량을환산하면 년이십오만원이라는 거액의손해를입게된다 그리하야 박천수리조합에서 작년도에수세면제한것만이 이만여원이고 재해복구비가 또이만여원이며 이수해로인하야 최근삼년간 제방수축비(堤防修築費)가 십오만원에 달한다 이러케 홍수로인하야수리조합으로서도 연년히 거액의 손해를입게되니 박천수리조합존폐에도 문제되지안을수업다 더욱이 삼가수리조합(三嘉水利組合)구역내에서 오는가을부터 제방공사에 착수한다하니만일이제방이 완성된다하면 배수로(排水路)가 협착하게되여 전기박천면과동남면은 한층더한수해를 입게될터이니 삼만여주민의 생명 재산은 탁류의희생을 면하기어렵다 다음제씨가 삼만주민을 대표하야 십이일에 각요로에 대령강제방을 완축하여달라는 진정을하고저 장도에올랏다。

陳情代表員 韓鎭克 山吉範次郞 金昌振 金泰浩 尹範奎

陳情日割

十三日 平安北道

十四日 平壤土木出張所

十五日 總督府

水源池測量實施

反對面民들도充分한理解로 鎭南浦水源池問題解決

【鎭南浦】 진남포부에서는 유만부민의 생명선상수도문제를 해결코저 용강군삼화면 충웅리(三和面忠雄里)부근 일대를 제삼수원지(第三水源池)예정지로 정하고 측량을하든중 지난유월십사일 폭동사건이 돌발하여 이래측량을 중지하고잇든바 폭동사건도 일단락을지여 주모자엽네명이 진남포검사국에 송치되여 취조를밧고잇는이때 삼화면민들도 실지측량에대한 인식이철저하여젓슴으로 부당국은용강군당국과용강경찰서며 삼화면당국과 타협한후 다시실지측량을개시키로되엿다고한다

二十年間禁斷된 外國牛의初入國

時勢의要求따라蒙古牛첫輸入

【平南支社發】 이십년만에 처음으로 외국소가 조선에입국을하엿다는소식! 소는조선농업에큰역할을하고잇슬뿐아니라 식용으로중요시되는데 더욱최근비상시에임하여는 그가축이 절대긴요하게되여 소의수요는 일층느러가고잇는데 현재조선소의수는 백칠십만두가량이나 매년도살(屠殺)이십오만두 폐사(斃死)이만두 이출(移出)칠만두족 약삼십오만두가 그럽자를갈조는데반하여생산은 겨우삼십육만여두에 불과하여 총독부에서 어십개년계획으로 적극증산을 도모하고잇스나 현재의수요에 만족을기할수는업는 형편에잇다 여기에잇서서 고려되는바법은 북지(北支)몽고(蒙古)로부터수입하는 소를수입하는수단이데 여것은 이십년전부터 총독부령에의하여엄금되여잇슴으로 한개의공상에불파하엿섯는데 최근의 특수정세에의하여 북방으로부터 소를수입하려고 여러 방면에서 노력하게 되엿고 당국에서도 상당히 고려를하고 잇섯든바 마침내 십일일 평북경찰당국과 총독부당국의 특별 고려에 의하여 편법(便法)으로 몽고소 (蒙古牛)가 기차로 조선에 드러왓다 소를가저온 사람은 경성부계동(桂洞)백삼십오번지 이정근(李貞根)씨로 씨는그소를당양에내리여 모기편에 납입하여식용에공하엿는데 이는장래로 이십년래의 기록적사실로 이전례를계기로하여 아프로 특별한편법에의하여 계속적으로 몽고 만주의소가 수입될지도알수업다고한다 그방면의소는 그특성에의하여 대개식용이외에는 별로 용도가업는모양인데 식용에만쓴다하여도 수입의길이열리기만하면 조선축우상태에는일대변동이 생기게될모양으로 그귀결이 매우주목된다고한다

忠北水稻移秧九割九分完了

大體로豊作을豫想

【淸州】 충북도내 금년도 수도이앙상황을 도농무과에서조사한바에 의하면 총작부예상면적 유만칠천삼백팔십정단보에대 전년동거 유만오천정보에이십전정보에비하면 일천백삼십이정구단보가 더첨되엿다는데 다시군별로보면 보은(報恩)조외사개군은 전부이앙이완료되엿다하는바 동상황을 군별로적으면 다음과갓다

郡別	移秧面積	步合
淸州	[illegible]	[illegible]
報恩	[illegible]	[illegible]
沃川	[illegible]	[illegible]
永同	[illegible]	一〇〇
鎭川	[illegible]	一〇〇
槐山	[illegible]	一〇〇
陰城	[illegible]	一〇〇
忠州	[illegible]	一〇〇
堤川	[illegible]	[illegible]
丹陽	[illegible]	[illegible]
計	[illegible]	[illegible]
前年同期	[illegible]	[illegible]

釜山商議所의 會頭役員決定

【慶南支社發】 부산부내 오천여상공업자(商工業者)들의 주목의초점이되여잇는 부산상공회의소회두(會頭)여하 역원선거는지난칠월이일 시행한 의원총선거후 전회두 립석파(立石派)와 전부산부회 부의장이던 서조파(西條派)의 회두쟁탈전이 격렬하게되여 심각한 의원 쟁탈전을전개하고 잇던바 지난십일오전세시삼십분경 겨우양파의 타협이 성립되여 예정과가티 그의일인 십이일 오후세시부터 의원총회를 개최하얏는데 부회두급상의원(常議員)등의 선거에대한 전거 양파의 타협이 순치된 성립되지안허 개회하지못하고타협을계속하야 동일시 삼십분에 겨우 타협이 성립되여 정각보다 네시간 삼십분 늣게 … 십분에 겨우 개회하게되엿다 립석전회두의 개회사가 잇슨후단기무기명(單記無記名)식으로의원선거를 시행한결과 다음의제씨가당선되엿다고한다

會頭 立石良雄 副會頭 金璋泰 松尾己之助 常務議員 金在根 中村高次 戎才吉 米倉淸三郎 五島甚郎 大黑西松

昨年中事故發生 十九件의多數

咸南道에서事態重視

新鐵事故後聞

【咸南支社發】 기보 정난십일일아침에이러난 신흥철도(新興鐵道)의 정면충돌사건은 그사고의원인이 순전히회사 종업원들의과실에 의한것이니만큼 각방면에서 회사당국에대한 물의가자못분분하다 어제도당국에서 조사한바를보면 그선로에서 작년중에만 발생한사고가 십구건이로 그피해자를보면 사망자구명부상자구십사명 합일백이명이다수가된다고한다 도당국에서 이러케사고가 속출하는데대하야극히중대시하고 작년사월십팔일부터 벌써 세번이나 아래와가튼경고(警告)를 발하엿는데 하등의 효과를 보지못하고서 또다시 이런사고가 속출한 사고가발생되엿다 이런사고에 만하야서는 도당국에서 극히중대시하야 신중한 대책을 강구하고잇는데 그주의사항의 주목되는도당국에서보낸경고는 아래와갓다

一、乘務員의 待遇改善

二、勤務規律의 嚴正

三、車輛의 補修

奉天監獄脫走犯 得勝台서被逮

【奉天】 지난이십칠일 봉천제이감옥(第二監獄)을탈출도주한 일본인계원의징역을받든 절도범인은지난구일 연경선득승대역(連京線得勝台驛)부근에서 수비중의〇〇부대(部隊)병사에게 체포되엿다고한다

神戸酒龍親睦會 勞働奉仕決議

【神戸】 신호지방에잇서서 천고에드문 대홍수는신문으로 … 현상에잇다함은 특보한바어니와 이참상을보고 재신호조선인단체(在神朝鮮人團體)중 신호주룡친목회(神戸酒龍親睦會)에서는 (會長 …)야 지난구일 의원회를 소집하고 전회원 백여명을 동원시켜 이일간 노동봉사(勞働奉仕)를 단행하기로 결정하고 지난십일부터 임원이원 제씨들이 선두에서서 제일착으로 노동봉사에착수하엿다고하며 동원된씨명은다음과갓다고한다

會長 丁海龍 … 朴 … 文莊 李明來 金永守 鄭〇爽 外十餘名

愛國傳票를發行

江原道의一石二鳥案

【春川】 이천칠백만원의 도로공사(土木工事)를수행하는 강원도에서는 은행관리공사장을 중심으로 산로될노임 칠백만원에대한 이웃 … 사십만원을 저축보국(貯蓄報國)국책에 순응하야 강원사업조(組)반장(飯場)통중심으로 시행케되엿다함은 기보한바어니와 그방법은 매일임금전표(賃金傳票)를 발행시에 그임금중 … 애국전표(愛國傳票)라는것으로 발행하야 그전표는 저축(貯蓄)외에는절대사용치못하게 하엿는바 지금편으로는 그성적이 극히양호하다하며 이저축은 실행조합(實行組合)규정에의한것으로 수시로찾을수가업는고로 … 각공사장으로 전전하는 … 노동자의 유동의방지책으로도 상당한실효를 나타내이여 일석이조(一石二鳥)책이라한다

校外訓育聯盟組織 學生風紀를監視

宣川各中等學校에서

【宣川】 선천일즐 중등학생삼천여명의 교외(校外)지도와단체중에잇는학생풍기의 악화감시를 철저적으로 노력하기위하야 시내 … 중등의 육개학교 교장으로교외훈육련맹(校外訓育聯盟)을지난유월십오일에 조직하엿는데 수일전 제일부회(部會)를시선학교에서열고 소기의목적을 십이분달성하기위하야 매일 부정시(不定時)로 각학교에서 한명식『암행순찰대』를 내보내여 밤거리의 학생풍기를 철저적으로 조사하는한편 북으로는 비현(枇峴)남으로는 정주(定州)까지 백명에가가운 남녀중학생의『풍화풍기』도 엄밀히 조사하야 교외훈육에만전을 다하기로 교유자의 립장에서 절대적 책임을지기로 작정하엿다 더구나 얼마아잇스면 여름방학이 된다하로 방학동안 귀성하는 학생들의 방학중 풍기에대하여도 … 하기로하엿는데 이로써 걱정과비난을 사고잇든『학원의풍기』도 소탕할것으로 일반의 기대하는바 자못크다

003452

拳銃犯에五年役

平壤法院에서言渡

【平南支社發】 … 책하는주인에게 권총을난사하고도망하여 무장강도의 총동까지보게되엿든 평양부남산정(南山町)삼치사번지 백낙현(白樂鉉)(三)에 관한절도강도살인미수사건에대하여 십이일 평양지방법원 유원(柳原)재판장으로부터징역오년의 판결언도가잇섯다

光州、木浦府에 土木課를新設

【全南支社發】 약진발전하고잇는광주부(光州府)와 전남도내 유일의 무역항인 목포부(木浦府)는 현재에 내무(內務)와 재무(財務)두과뿐이엿는데 광주목포양부가 현재토목사업이허다함으로 금후토목사업이 허다함으로 새로토목과를 신설하기로되엿는데 지난십일부터 일제히실시되엿는바 그로인하야 금후토목공사에일반부민은 만흔기대를가지고잇다한다

朝報案內

家具 … 三丁目 …

女子 外勤 … 採用 …

內勤待遇社員採用 男子三名 女子五名 年齡男子二十歲以上 女子二十歲以上 京城永樂町二丁目五六 板谷生命朝鮮支店

傷

瘭疽 대독 부시름 헌데 덴데 介癬 痔一般

本舖 大阪瓦町 中井一馬藥房 (全國에有함) 二十錢 三十錢 五十錢 一圓 五圓

上記의 各症에는 유비구수리는化膿菌類似의 外傷藥과全然內容이달라 止血、鎭痛、消炎、化膿을治療豫防하고肉丘를形成新生의肉芽를促進 治療하야顯著히治癒를迅速하게합니다

大阪瓦町 ゆひくすり 유비구수리

漁具 投網、鳥捕網、釣竿、繼竿、釣針、絹糸、麻糸、綿糸、其他各種

(定價表進呈) 京城府黃金町四丁目 製造卸商 海鮮商會 電話本局四三七〇番・振替京城二〇五七九番

キエカトール 家庭用芳香強力殺虫液 家畜專用キエカトール잇슴

파리、모기、빈대、구데기、진드기等을根絕해서惡疫防止하고 室內를淨化해서衛生을지키라

液體로서第一 잘듯는다

芳香揚揚 人畜無害 理學博士佐々木忠次郞先生 藥學博士大槻 式先生 有効御證明

安住かとり線香本舖 發賣 安住大藥房 大阪

宮內省御用達 MORINAGA'S BISCUITS 詰合 森永ビスケット 모리나가비스켓도

實行·品質·東洋一! 大端히經濟的이오 滋養이豐富하고衛生的이라는點에서發育期에잇는아기네들에게는업서서는아니될必須品으로생각합니다 반드시愛用하여주시기仰望하나이다 照請하실때는반드시森永品이라고指定하여주시옵소서

森永製菓株式會社 森永製品朝鮮販賣株式會社

돈버리의王 一夏의利益五千圓 アイスケーキ機械 新品、中古品(類似品有함) 釜山府大廳町通 朝鮮冷凍工業所 電話五六一番 型錄進呈 製造營業秘法傳授

眞玉石眼鏡 都散賣 慶北慶州邑本町通 慶州南石工場 主金在圭 (商報無代進呈)

月経不順·こしけ·頭痛等は婦人科·子宮病の有る證據! 現代女性의… 一步進步된婦人科藥 惠乃玉 무엇보다도 事實이雄辯 亦是이것이第一조라! 無代進呈 惠乃玉의主効 本舖 八幡市春の町 合資會社 貴命堂本家

改正商法(會社編)解說 ①

改正된 商法은 四月五日에公布되엿거니와 그運用如何에 依하야는 經濟界에 미치는 影響이크므로 總督府法務局에서는六月卅日 高等法院、覆審法院、地方法院等 關係判事에게 適當한方法으로 運用에 遺憾이 업도록 注意를 喚起한바잇섯다 이제 改正商法에 對하야 司法省民事局長 大森洪太氏의 解說을 들어보면 다음과갓다

商事立法轉換 歷史的懸案解決

先般議會에서 商法中改正法律案及 有限會社案이 兩院의協贊을 어덧는데 右二案의槪要를 說明하여보겟다。

商法中改正法律은 現行商法의第一編總則及 第二編(會社)에對하야 根本的으로 改正한것이다。

現行商法은 明治卅二年에 公布實施된것인바 其立案當時로부터 我國의 朝野가 모두 治外法權撤廢에 努力을 集中하고잇든때로서 治外法權撤廢를爲하야는 爲先諸般의 法典을 整備할必要가잇섯스므로 法典의 編纂을急히하엿는데 商法에잇서서는 其編纂을急히한結果 實施當初부터 대단히 不充分하다는非難이잇섯든것이다。但明治四十四年에 一部分의 改正을하엿스나 그것은 單只應急的인것으로 決코 滿足할것이못되고 一方經濟生活은 日進月步로 進展하야 商事法規는 民事法規에比하야 實際狀態에 即應한改正의必要가만흔것이다。

×

그런데 歐洲戰爭後 各國이모두例外업시 商法(特히會社法)을全面的으로 改正하는 世界的機運이생기엿다。歐洲戰爭은 商業上의企業組織에對하야서도 從來의組織에는 大缺陷이잇는것을暴露하엿다。따라서 諸國에서는一齊히 商法(特히會社法)의改正에着手한것인데 我國에서는 그러치안허도 商法의不備가 甚하엿스므로 其影響을特히 顯著하엿다。이러하야 商法改正促進의運動이 關係各方面에서 喚起되여 드듸어政府에서는 昭和四年內閣에 法制審議會를設置하고 其諮問에 應하야 法制審議會로서 商法改正의要綱을 決定하엿다。이審議會는 一年餘의 審議를經하야 昭和六年 商法中第一編總則及第二編會社에對하야 改正要綱 二百六項을 答申하엿다。政府에서는 右答申에 基하야 商法第一編及第二編의 改正案을 作成하기爲하야 昭和七年司法省에 委員會를 設置하고 其調査及立案에 當하게 하엿다 이委員會는 多年의 努力으로 昭和十年成案을어더 이것을 公表한것이다 이러하야 商法中改正法律案이 昨年의 通常議會에 提出되고 貴族院에서 一、二修正한結果 可決되엿든것인데 衆議院解散으로 드듸어 法律로서 成立하지못한것이다

根本的大改正 罰則規定도改正

右와如히 改正案은 第一編及第二編을 根本的으로 改正한것으로 現行規定에 變更을 加한것 現行規定을 存續시킨것 現行規定에는 全혀 업는것을 새로히 規定한것 現行法規의解釋上의 疑義를 法文으로서 明白히 한것等 諸種의 內容으로 成立된 五百條에 達하는 一大法典이다。其內容을 個個로摘記하기는 困難하나 改正의主力은 第二編會社에 傾注되고잇스므로 以下會社編의 改正要點에對하야 解說하여보겟다。

(一) 會社는本店所在地에잇서서의 設立登記에依하야 成立하는것으로한것

現行法에依하면 會社의成立은 設立登記가 必要하다。따라서 右登記를經了하기까지는 會社의成立을 認定하는데 甲에對하야서는 成立한것으로되나 乙에對하야서는 成立되지안는다는것은 法律生活의安固를期하는 所以가아니요 또實際에잇서서 諸種의支障을 齎來한다。따라서 新法에잇서서는 設立登記로서 成立의要件으로하고 設立의登記는 設立手續의最後의 段階가될것을明白히한것이다。

(二) 會社의設立無效의訴를認定하고 其效力을 制限한것

現行法에잇서서는 會社設立의 無效에對하야 何等의 規定이업다。따라서 解釋上 누구든지 何時에나 또 如何한 方法으로나 會社의 設立의 無效를 主張할수잇게되는데 이는 會社의 安定을 期하는所以가아니다。그런데 新法에잇서서는 設立無效의 訴를 認定하고 其主張方法에 對하야서도 新法에잇서서는 訴를提起할수잇는者를 制限하고 그에 對한 判決의 效力도 明確히하는 ...

(三) 會社의 合倂에 關한 規定을 整備하고 合倂無效의 訴를 認定한것

現行法에는 會社合倂의 無效에對하야 規定이 업다 ...

(四) 罰則에對하야 全面的改正을 加한것

現行法의 會社法規罰則은 그規定이 明治三十二年當時의 法規로서 其後에改正되고 또 現行法規의 罰則規定과 比較하야 其刑罰이 輕하고 他種의 刑罰法規와의 權衡을 喪失하고잇는것은 ... 新法에 잇서서는 會社에對하야 全面的改正을 하게되엿다。

內外地呼應하야 米穀政策戰時化

專賣에가까운强硬策?

前부터豫想되고잇든 米穀統制强化에 對하야서는 農林省에서드듸어 積極的으로 着手하기로決定하고 여러가지準備를 進行하고잇는데 總督府에서도 이미 이것을 豫想하고 內內硏究를하고잇든中이므로 農林省側의 具體化에따라 內外地를通하는 統制協議會가튼것이 開催될것갓다 그리고 今般의統制强化가 如何한 形態로 現出될가는 全혀未知數이나 大槪는 日本米穀會社에依하야 專賣에가까운 强硬한것으로 될것으로보이고 그經過는자못注目되고잇는데 如何튼지 秋蠶期하야 朝鮮米界에도 劃期的大變動이 오지안흘가 觀測된다한다

朝鮮內米穀需給 端境期에窘塞

移出餘力未滿百萬石?

七月一日現在 朝鮮의 殘存米는 三百八十八萬三千九百五十五石으로 去五月一日現在 殘存米七百三十一萬四千四十四石에比하면 三百四十三萬二千二十九石의減少이며 昨年同期의 二百五十六萬五千七十一石에比하면 百三十一萬八千八百八十四石의 增加인바 昨年十一月以降 六月末까지의 八個月間 消費狀況을보면 如左하다

◆供給

保越高	三二五千石
實收高	一六、七九六
輸移入	二五
計	一七、一四六

◆需要

輸移出	九、〇〇四
現在高	三、八八四
計	一二、八八九
◆差額(消費)	一四、二五八
月平均	七三七、九六三
前年同期消費高	一、二〇三、二八八
同月平均	六〇一、六四四

卽八個月間의 消費는 一千四百二十五萬八千石에 達하얏다 今後七月以降十月까지의 消費를 糯粳用其他關係로 적게잡어 一個月六十萬石식이라 假定하면 四個月間消費는 二百四十萬石이되겟고 그러타고 七月一日在米三百八十八萬餘石에서 持越高五十萬石을 除하면 移出餘力은 百萬石未滿이겟는데 內地移出이그以上으로된다면 朝鮮米需給은窮屈케될것이다

昨年總量凌駕 米消費激增

八個月間 一千四百餘萬石

十二日發表된 七月一日在米高로推算한 五、六兩月의 朝鮮內米消費高는 百四十七萬五千九百三十四石 一個月平均七十三萬七千九百六十二石으로 이것을 前年同期의 百二十萬三千二百八十八千石에比較하면 總數二十七萬二千六百三十六石 月平均十三萬六千三百十八石의增加이다 卽前年未曾有의 大豐作을바더 農家의 消費가著增된때문인데 年頭初頭로부터의 消費量及前年比較는 如左하야 過去八個月間에 이미 千四百二萬石을 突破하고 昨年의 總消費高 千二百五十八萬石을 凌駕하기를 六十八萬石에 達하얏다

◆十一月一日부터 一月末日

消費高	一〇、八四六、三六九
月平均	三、七一一、五九二
前年同期消費高	八、五八六、〇八八
同月平均	二、一四六、五二二

◆二月一日부터四月末日

消費高	一、九三六、四四九
月平均	九六八、二二四
前年同期消費高	一、七四一、六四八
同月平均	八六一、四二四

◆五月一日부터六月末日

消費高	一、四七五、九二四

米移出累計 九百十萬石

七月上旬의 米移出高는 二十二萬五千二百十三石으로 比前年同期 十萬二千七百四十七石增이오 十一月以降 米移出累計는 九百十萬七千三百八十石으로 比前年同期 三百九十萬九千四百十三石의 激增이엇다 그리하야 米의輸移出累計는 九百二十五萬七千七百六十二石으로 比前年同期三百十九萬五千九十六石의 增加를示하얏다

粟輸入續減

七月上旬粟輸入은 八千九百八十六石으로 比前年同期一萬六千五百四石의激減이오 輸入累計는 四十九萬二千五百卅石으로서 比前年同期卅一萬四千百卅四石의減이다

今後도産金金融 東拓殖銀이代行

産金振興會社는 現在의 豫定으로서는九月末營業을 開始하기로되여잇는데 會社의營業開始까지 産金金融을 代行하고잇든 東拓及殖銀은 一次其業務를 會社에引繼하기로되여잇다 그러나振興會社는 開業初이므로 技術金融關係의準備가 整備되지못하엿스므로當分間 東拓、殖銀이 從來와가티産金金融에 當할터이라한다

東拓産金金融 七百萬圓貸出

東拓의産金資金은 第二回配定分七百萬圓도 이미 先月來受入하고 第一回分一千萬圓과 合하야 一千七百萬圓의 資金을擁하고 金融에 當하고잇는데 融資申請은 繼續하야旺盛하다 現在實際의貸出은 七百二十萬圓內外이며 이미總督府의産金審議會의 承認을어든것도相當히잇고 今後도順調히 消化될모양이라한다

鮮銀、正金以外 邦銀進出不許

北支에 對한 邦系金融機關의 進出로서는 新情勢의 展開에따라 旣進出의 正金、鮮銀外에爲替銀行等의 進出도 豫想되고잇스나 同地帶의 特殊事情에 鑑하야 大體로 正金、鮮銀二行以外의 進出은 斷然不許可의 方針이 決定되고 그리고 現地狀勢에 依하야 主로 朝鮮銀行이 其局에 當하기로 되여 鮮銀의 北支에서 占하는 重要性이 去益累加케 되엿다 卽

一、北支의 聯銀의 健全한 進展을 期하는立場에서 邦系金融機關은 이와 現在業務協定中의 正金、鮮銀의 二者以外不認可할方針이다

一、그러나 正金은 國際的爲替銀行의 使命上 北支、中支의業務와가티 歐米의 爲替連繫도 考慮하여야되므로自然 그全力을 傾注할수업다

一、鮮銀은 北支向의 本邦關係爲替를 가장 積極的으로 掌握하게된다

一、그뿐아니라 現地의 邦人金融에 關하여서는 他에依賴할것이 적으니만큼 全혀 鮮銀依存으로된다

貨物出入狀況

京城手形交換所調査=六月中의 京城府內倉庫貨物出入狀況은

	個數	金額
本月入庫	二三、一三	三〇四、六一四
本月出庫	二六、一四七	三〇〇、八四〇
月末現在	一四四、五二	四八、六八七

으로 前月末에比하야 個數는一萬七千二百四十個減少이나 金額은 三萬五千七百二十一圓의 增加이엇다

◆合計

本年消費高	一四、二五八、七四二
前年同期	一〇、五二一、〇二四
差引增	三、七二七、七一八

그리고 前年總消費高一二、五七九、二三六八石에 比較하야도一、六七九、三七四石의增이다

私鐵의建設挫折

軌條入手難深刻으로

新私鐵建設에잇서서 時局의展開는 資材不足을 深刻한不安材料로하고잇던바 果然 最近에이르러 『레일』의 供給關係로 再次參鹿的事態에 逢着하엿는데 京春鐵道와 가튼것이 가장 憂慮되고잇다 卽

私鐵의『레일』供給에 對하야서는 年初以來諸工作이 進行되여 大體로 不安一過의 勢이엿스나 또 다시 最近에이르러 이契約이 受渡에當하야 支障이 생기고 就中 京春鐵道는 이미八〇%工事를 終了하고 明年四月 開通豫定이던바 其入手는 現在 確實한것은 約三分之一박게안된다한다 朝鮮內關係의 新私鐵中 軌條를目下完全히配給의可望이잇는것은 私鐵建設工事는平北鐵道端豐鐵道及朝鮮鐵道의 茂山線뿐이오 京春鐵道外三線鐵道西鮮中央鐵道、多獅島鐵道의 支線等은 軌條入手에依하야 豫定計劃에큰支障을招來코잇다한다

東拓、蒙古地帶서 大牧場計畫

【張家口十二日發同盟】東拓에서는 日前黑田囑託을 張家口에派遣하야 蒙古地帶에 一大牧場을設置할려고 蒙疆政權과協議하엿는데 近近東京本社에서 檢討한후에 着手할것으로보인다 右에依하면 察哈爾盟化附近을選定하고 初年度에는 約六十萬元으로써馬二千頭羊一千頭牛百頭를 飼育할려하는것이라한다

經濟界消息

○朝鮮製鍊八分配=朝鮮製鍊에서는 來二十日 定時總會를열고上期決算案을 附議하는데 配當은八分据置의豫定

○京城電氣一割据置=京城電氣에서는 六月末決算을 끗마치고七月二十七日 東京에서 定時總會를 開催하는데 配當은一割据置로內定

○鎭南浦水産組合總會=朝鮮鑛業水産組合第九回定期總會는 十三日午前九時半부터 京城商工會議所第一會議室에서 開催하고昭和十二年度 經費收入支出豫算追加件外 十六議件을 附議하리라고

株式 鐘紡先驅爆發

連續的惡氣流一掃

今日의市勢【十三日】

前場暴騰 某强材料를好感하고 今朝는外電更高와 相俟하야 民人觀罐實의 買氣勃發하야 暴騰되엿스니 東新은 二十七圓一〇 그一圓高、滿業七十五圓三〇인一圓六十高、鐘紡一百五圓四〇인一圓六〇高도 一齊上放寄付後 東新은百三十圓의 大關門을恢復한後百二十九圓八、鐘紡一百九圓八의高價로大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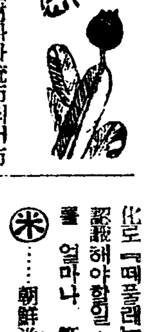
後場爆發 前場의 反撥에 뒤이어 後場은東新百三十一圓六〇인 一圓八高 鐘紡二百十四圓九〇로 五圓一高로 鐘紡中心大上放寄付한後高價는利喰賣로一息大引

某材料期待 驟然好轉

全面的統制强化로 價格公定制度의 擴大等本格的施行制限品目의 擴大等本格的戰時經濟實行에 入하야 未經驗의事態에 直面한만큼 物價의由로팔어 物價가올르고 事業會社가 好成績이고 此等株價도上昇하던 根本原則이 戰時體制로 抑壓되어서 鐘紡가튼것은 昭和八年二月以來의 低價로 떠러지고 東新도 昨年底價를 下廻코나서 昨日來反撥된 市勢는 某好材料를 期待코 驟然恢復되어 買人氣復活로 今前場은 東新百三十圓丁 鐘紡二百十圓臺門內迫의 好勢이엇다 그材料라는것이 好材料임은 事實이나 果然 얼마나人氣를 轉換시킬수잇슬지 注目되는터이며 아미鐘紡 十三圓東新七圓反을 示한今後가 어떠할른지?『떼폴레』로부터『이폴레』로의 轉換은 時間的問題으로 必然的이 잇다는말도 업지안치만 區區한 利觸나 取組關係等을 一括할수업는 時代이니만치 探算的으로 어떠라는말은 어디다가 根據를 두어야 할지 疑問이다 그러나 구로도 側어로 主로 投機株를 賣叩하얏섯는데 對하야 客側投資側이 時局産業을中心으로 低價를買하는事實은意味잇다한다

東新重大關門 强弱모두要注意

요즘米穀株式界에는 諸種의歡迎材料가 輻輳하얏고 最近에는 特히恐怖人氣 場面을 支配하야 悲觀되여 東新은 마츰내 百二十圓臺로 떠러지고말엇다 東新의 百六十圓臺와 百三十圓臺는 特히 重大한上下大關門이다 大體의 境遇低落市勢의 때에는 이 下關門內에서 阻止되고 또 市勢로 轉하얏다 萬若顯著하게 이下關門을 깨치면 다시數十圓이 더暴落하는때도잇지만 그것은 稀有한일이다。이번도 드듸어 이重大한



株……某强材料가 流布되어市勢는 俄然好轉、反撥이 繼續되고 鐘線側은 大勢轉換을云云하고 잇스나 ◆그만큼 떠러젓스니 요만한反撥은 當然한것이겟지 ◆國家主義로의 轉換期인즉 赤分檢討가 必要하겟고 事變解決後도 經濟政策이 容易지안흘것은 豫備한일 ◆昨年底價까지 下廻하얏스니 더팔수업다는것이 急反發의 一因이된듯 ◆昨年八月은 戰爭의 前途, 財界影響에 對하야 政府까지 작항해섯지만 그래도 戰爭『이폴레』必至를 信해나 ◆이번에는 物價統制의 徹底組調休戰時代

米……朝鮮米의實收高는 昨年보다의 七百萬石의 大激增을示하엿슴에 反하야 七月一日을示하엿슴에 反하야 ... 얼마나 恢復케하랴노

◆昭和四年第二次關門線突入=前年의高價後 反動에드러가 暴落을 繼續하야 四月에드러서 下關門에 入한때에 때마츰世界的不景氣、金解禁及 緊縮政策으로 다시금 大關門이깨여저 翌五年에는 八十二圓六까지低落하고 其後轉換된것인데 六年末의 金再禁止까지 이關門線中心으로 上下五、六十圓의 大波瀾을 거듭하엿섯다。

◆昭和七年第三次關門線突入=一月의 百七十九圓으로부터 反動에入하야 六月에關門에 突入後 急轉換하야 一百二十九圓臺를 繼續하엿다。

◆昭和九年第四次關門突入=前年의 二百圓을 中心으로한 高價大波瀾으로부터 反動에드러가 取引所問題 云云으로 賣叩되여 이關門을十錢 低落하엿스나 直時翌年의 百七十八

◆昭和十一年第五次關門線突入=二、二六事件으로 恐怖的人氣가되여 大暴落되고 一擧에關門을 入하얏스나 다시七十錢을 下廻하얏스나 亦是下止되고 百七十四圓으로 뭉쳐하얏다

◆昭和十二年第六次關門線突入=支那事變突發에 依하야 八月에 關門入을하얏스나 直時恢復되여 連戰連勝의 戰捷市勢로百八十圓五에 急奔騰되엇다

◆昭和十三年第七次關門突入=國際情勢의 複雜、統制强化其他惡材料로 緦悲觀人氣化하야 關門線內에 突入하얏는데 이번에는 果然如何?

◆昭和二年第一次關門線突入=大正十二年東京에 걸처 百八十圓中心에서 高價保合으로 反動에入하야 翌昭和二年恐慌의 金融恐慌으로 因하야 暴落되고 이關門線에까지 突入된後 阻止되여 反市勢로轉하고 翌三年의 百九十五圓을向하야 急騰하엿다

圓에까지돌아왓다

期米續伸이나 頭重

前場伸惱

今朝赤雨天으로 阪神初付三十五圓十六錢인六下反高를 接하고當限은二圓二十八錢인 二三高先限은 二圓五十三錢인 作止同樣으로 場을始한後阪地二節로로五節까지의 四番同價인十九錢을보고 五十九錢에올르다가 五十八錢에 伸惱이고 結局阪止 二十錢에 小反이나 五十五錢에 止場하엿다

後場頭重

後場은 卅二圓五十六錢인 一丁高로 場을始한 五節五十二錢에 頭重이엇다

國債保合

【東京電話同盟】株式은 急反撥을告한一方 金融需勢도 不安이업서 人氣는 繼續하야 堅調인데 新規三分半이 國際情勢를보면서 活潑한 買氣를 보이기에 至치안허 甲號가 五錢引외에外 依然保合으로 推移되엇다

殘米樂觀不許

昨夕內地殘存米 第二次分의發表는 茨城縣外 十二地方의것이 九百十萬三千八百八石으로 昨年同期에比하면 七萬一千三百五十一石의 減少로 第一次分發表의 四十一萬六百二十四石(四萬一千六百六十四石의訂正)의 增加에서 第二次分을 控除하면 其實三十三萬九千三百十三石의增加를 示하엿스나 實際殘存米의 一次分을 合算하면 一千八百三十四萬四千百七十六石으로 남어지 十六地方의 分을 九百萬餘石으로 假定하면 總殘存米는 二千七百四萬、五十萬石乃至五六十萬石밧게 아니될모양인즉 前途需給의 緊縮으로볼수업고 又는 朝鮮殘存米三百八十八萬三千九百五十五石은昨年同期에比하야 百三十一萬八千八百八十四石의 增加를 示하엿스나 內地의移出은 朝鮮의 豐作翌年인만큼 昨年에比할바가아니여서 적어도 七月부터 十月까지의 百五十萬石은 될것으로豫想하고잇스니 朝鮮의 需給問題 亦是樂觀을不許한다고

强材도弱材도 全然度外視?

아도된 實勢의 新局面이 드러서 그러면 어떠케 되느냐 云云果如何?라고

新穀九月限이 發會한後 約半個月動作은 五十餘錢의反動을示하엿는데 其間關東地方의大洪水와 阪神地方의大水害等 被害가不少하엿슴에도 市勢는 幾分反動을 加하엿을뿐 依然伸惱狀態를 呈하엿다 去六月부터 霖雨로 稻作에對하야 不安하다는 朝鮮에 新雨는 非常한 好影響을 與하엿음에도 一向不拘하고 또한 下落狀態에엇스며 今回의 內鮮殘存米發表의 影響으로 强材化에도 그 價格은 强材化에 作用치안코 政府의 統制强化로든지 또 産地農家의 責惜으로든지 全然度外視하고 結局强材도 弱材도 全然度外視하는 것은 政府의 物價抑壓政策이 다 嚴하면서 全혀 支那事變의 關係이므로 强化는 本格的市勢는 事變終熄後가아니면 容易히 展開되지안홀것갓다

朝取期米取組內容

◆賣方 ◆買方

	當	中	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正米 消極態度 底堅

京城强硬

大豐作、殘存米增加도反映되여 無響인데에 內地의 連日降雨로 稻의 分蘗狀態不良으로 懸念되는 人氣로부터 深刻하고 移秧作의 人氣로부터 凶作豫想으로 逆轉하야 市中人氣도 相當히 强硬하나 今日在米의 發表全額待로 伸惱되여 市勢五錢高로 張硬이엇다 三等三二、二五 四等三二、〇五 一等白米三二、八五

仁川强調

天候의不良으로 産地의 態度는 頑强한데에 當期의强調로 所持側이 賣惜하야正租에 精粗高原料入手難으로 精米側은 玄米物色買가잇고 一般人氣强하야 昨日보다 五錢高로 唱함 ㊣銀坊主同四等 三三、五 四等三二、八 一等白米四

釜山底堅

天候의 恢復으로 都賣側에 相當한 賣物을期待하고 잇는데도不拘하고 産地는殘存米의 全殘待로 賣惜하야 清算의 强으로 市勢는五錢高로 底堅이엇다 ㊀穀良三等三二、八五 四

大邱少高

天候의 霖雨的降雨는 內地가튼 水害를 惹起시키지 안코 따라서 虫害發生까지는 傳하야 各地期米의 一齊上放을 反映하야 市中은 매우 强硬하야 高唱되기여 前日의 殘存米全殘待로 無理이나 進出치못하야 市勢도五錢高이엇다 四等良三等 三二、一 四等 三二、九〇 一等白米 三三、五〇

群山不動

殘存米는 唯一한 强材도 미더든 産地는 第一第二次 發表가모다 豫想外로 增加되여 地의 水害는 軟化될 형이엇스나 內地의 水害는 남로與大할을 傳하야 朝鮮內의 精調로 人氣는 軟化되고 內地人氣의 依然 不振으로 積極進出이 업서 小口賣買뿐으로 不動이엇다 ㊣銀坊主 三等 三三、一〇 四等 三二、九〇 一等白米 三三、八〇

木浦釘付

市中은 內地水害가 남로深大함을 傳하야 定期는 猛騰이나 第一次第二次殘存米의 豫想外의 增加와 朝鮮의 好順으로 奧地一部는 投기된 模樣을 觀望하고 다시 氣迷되여 市勢도 釘付이엇다 ㊣銀坊主 三等 三三、四〇 四等 三三、〇〇 一等白米 二三、九五

今日財界【十三日】

◆米 (單位錢)

	今日終値	比前日終値
仁川期米先限	三二五	不變
大阪期米先限	三三八	二〇低
京城二等米一石	三三五	五高
白米(一等)	三三五	木變
正租(仁川)一等	一五〇	二高

◆株 (單位錢)

	今日終値	比前日終値
朝新	二四〇	三高
東新	一三六	四六高
鐘紡	三三	八五高
綿紗	一九〇	五〇高
人絹	[illegible]	[illegible]
砂糖	三五	一〇高

海外經濟【十三日】

銀行券【十三日】

鍋油粕麥粉

金利手形交換

金銀價

對外爲替

正米

正租

雜穀

綿絲布

滿洲商況

株式

◆朝取短期

◆朝取主要取組高

◆賣定代引日步

◆東京短期

◆大阪短期取組

◆東京現株

◆東京短期取組

◆朝取短期賣買高

期米

◆朝取期米

◆朝取期米賣買高

◆大阪長期

◆大邱期米

◆木浦期米

◆群山期米

◆釜山期米

◆各地期米

◆東京期米

◆大阪期米

◆大阪期米取組

京城物價【十三日】

◆白米 (一叺、單位錢)

◆麥酒 (新二三叺、單位錢)

◆肥料 (一〇貫、單位錢)

◆紙物 (單位錢)

◆石炭 (一噸、單位錢)

◆石油 (一罐、單位錢)

◆京城市場卸賣價

◆砂糖 (百斤、單位錢)

◆洋灰 (五〇斤袋、單位錢)

◆鐵物 (單位錢)

◆海産物 (單位錢)

◆染料 (斤、單位錢)

◆顔料 (單位錢)

◆木材 (才、單位錢)

◆本絹人絹 (疋、單位錢)

◆牛皮 (乾皮百斤、單位錢)

綿絲

◆大阪綿絲

棉花

◆大阪棉花

人絹

◆各地人絹

生絲

◆橫濱生絲

砂糖

◆大阪砂糖

◆東京砂糖

[illegible]

石重 高價買入 東明商會 京城府鍾路二丁目一四 電話光化門③九七六番

京城 益康 仁川 金益證券

株式 期米 玉 京城黃金町 仁川本町 マルタマ取引店

期米 東 趙俊鎬取引店 仁川海岸町三丁目 電話